



© Curtis Perry

Cover Story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COLUMN 호모 무지쿠스 나렌스
여기. 예술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바리데기

2025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2025. **5. 22.** 목 - **23.** 금 19:30, **24.** 토 1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대본/작사/연출 김지웅 작곡/편곡 김창환 지휘 이동훈 안무 이정윤
출연 합창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관람연령 만5세 이상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or.kr



다시 만난 숨

South Breeze

南風

연출/안무
이정윤

Art & Tech
김주섭

2025.5.9 (금) 19:30

5.10 (토) 1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홍석원



BPO SYMPHONIC SEASON 2025
Seokwon Hong, artistic director

NEW WORLD

부산콘서트홀 개관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0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 교향곡 제41번 〈주피터〉
W. A. Mozart / Symphony No.41 〈Jupiter〉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A. Dvořák / Symphony No.9 〈From the New World〉

*

지휘 홍석원

620

2025.5.23.(금) PM 7:30
부산콘서트홀

www.bscc.or.kr



5월 가정의 달에 선보이는 **가족뮤지컬**

엄마, 같이 걸을까

지휘 천경필
연출 김희연



2025.
5. 31.SAT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입 장 료 R석 3천원, S석 2천원

문 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MOSCOW STATE BALLET
LA CLASSIQUE

SWAN LAKE



Moscow State Ballet 'La Classique' World Tour In KOREA

모스크바 라 클라시크 발레단 월드투어

백조의 호수

2025.7.12 ~ 13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WSM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시간 오후 2시, 6시 30분 예매 인터파크, 티켓링크, 네이버예약 문의 1566-5490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1인 2매 / 1566-5490 전화예매시 ★★



MAY 2025

VOL. **401**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고객지원팀장 남양욱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엽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5년 4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08 Column
호모 무지쿠스 나렌스
- 10 여기, 예술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 12 Cultural Issue
예술의 '새로움'을 위한, 부산과 서울의 '새로운' 공연장
- 14 무대 뒤 사람들
안무가 이용진
- 16 현대미술산책
최소한의 질서를 향해, 데 스틸
- 22 Cover Story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 25 Preview
- 31 전시가화제
2025 Loop Lab Busan '타임 큐비즘 Time Cubism'
- 32 문화가화제
2025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
- 36 Review
- 40 Program Guide
- 54 객석에서
- 55 New Book
- 56 BSCC News
- 60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호모 무지쿠스 나렌스

글 박진홍 음악평론가



음악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언어다. 음악과 더불어 말과 글 그러니까 언어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음악 속에 감정과 기억을 담고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 필자는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호모 무지쿠스 나렌스(Homo Musicus Narens)라 부른다. 이것은 음악하는 인간(Homo Musicus)이자 이야기하는 인간(Homo Narens)으로서 음악을 만들고 즐기며 동시에 음악을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피타고라스는 악기에 매달아 놓은 현의 길이와 음정의 비례 관계를 발견했고, 여러 저술을 통해 음악이 단순한 감각의 영역을 넘어서 수학적, 우주적 질서에 닿아 있다는 생각을 설파했다. 그는 인간과 우주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는 데 음악을 사용했고, 이는 인간이 음악을 통해 우리 주변 환경과 나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같은 시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 인간의 윤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감정의 형성과 공동체 윤리 교육에 음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됨의 조건과 이상을 이야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음악은 종교적 맥락 속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네우마(Neuma)라는 기보법의 등장이다. 지금의 오선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체계로 이것은 단지 소리를 종이 위에 기록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문자로서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였다.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 꽃핀 시기였다. 이 시기의 음악 서술가들은 체계적인 저술활동을 통해 음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요하네스 틴토리스는 이전 시대의 음악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하며, 새로운 감각과 규범을 적극적으로 정립했고, 자를리노는 음악을 수학, 윤리, 자연 철학과 연결하고 고대의 전통을 르네상스적 감수성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이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감성의 변화와 이를 반영한 음악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글로 이야기 해냈다.

바로크 시대에는 라모가 화성과 관련된 이론을 정립하며, 소리의 어울림과 긴장, 이완, 해소를 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또 다방면에 재능을 보여 다빈치에 비견되었던 키르히는 음악을 신의 질서와 인간의 감정 사이를 연결하는 언어로 설명하면서 음향학, 음악치료, 작곡 등 폭넓고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를 다루었다.

19세기 들어 음악은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의 음악학자 귀도 아들러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역사 음악학과 체계 음악학이라는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구분은 그동안 있어 왔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내용에 따라 구분할 것인가를 다룬 것으로 호모 무지쿠스 나렌스가 자기 기억과 표현 수단, 지적 활동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려는 시도였다. 이후 사람들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며, 음악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한편,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음악을 듣고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를 음향학이라 이름 붙였다. 이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스스로의 감각을 설명하고자 한 결과로, 음악을 감각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철학적 사유의 대상에서 물리적 연구의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다. 조성이 파괴되는 혁신적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 애썼고, 그 음악의 난해함을 비판하고자 하기도 했다. 서구 중심의 음악 이해를 탈피하고 전 세계의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동등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야기의 주제로 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젠더, 계급,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이제껏 상상해 그렸던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신경과학 등이 새로운 음악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다. 점점 더 인간은 음악을 삶의 이야기로 해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음악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이자, 세상을 보는 관점 중 하나가 되었다.

음악은 오랫동안 인간의 감정과 사고, 존재를 이야기해 온 언어였다. 호모 무지쿠스 나렌스로서 우리는 음악을 듣고, 해석하고, 말하며, 삶 속에서 음악과 함께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이해해 왔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단지 음악을 소비하는 듣는 이로서 뿐만 아니라, 음악 속에 자신을 비추고 삶을 되새기는 능동적인 서술자가 될 수 있다. 음악은 우리의 일상 너머로 확장되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쓰는 주체는 바로 우리다. 바쁜 하루 끝에 한 줄의 음악 일기를 남기듯, 우리는 음악을 통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를 말하고 기록할 수 있다. 음악은 그렇게, 여전히 우리 삶의 언어다.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글·사진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며, 그 구성은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에서 합의된다. 인류 초기 결혼은 가문의 이해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으로 개인의 감정과 의지에 대한 의식이 커지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가족의 영향력이 줄자 자유로운 연애와 개인의 결혼 의사에 따라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의 구성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해왔다. 결혼에 대한 윤리의식도 변해왔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나 우리나라 신라 왕족이었던 성골의 경우, 군주라는 절대 권력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기에 근친혼을 했다. 중세와 근세기에도 가문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한 친족 혼인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경우와 같이 계속 이루어졌다. 지금은 금기를 넘어 불법이지만 당대엔 절대권력자들의 공식적인 결혼제도였다. 그렇다면 금기는 금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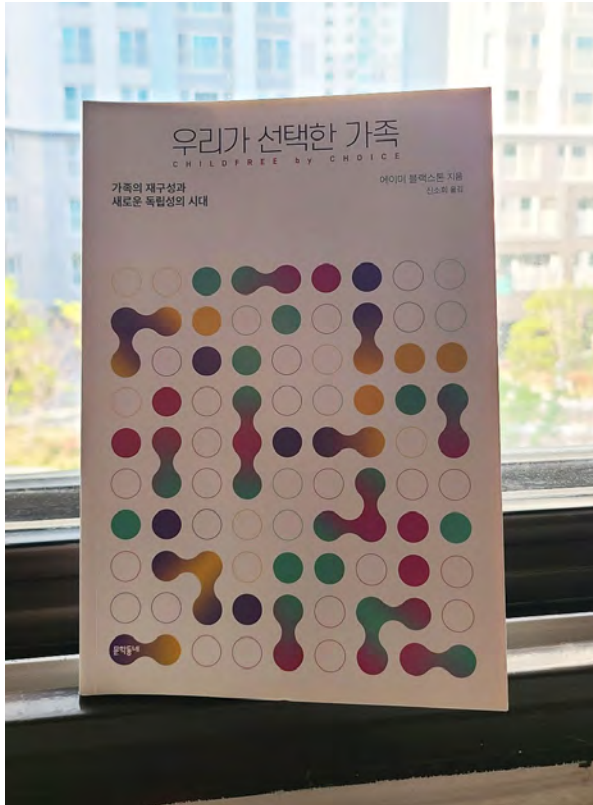
줄리 마로(Julie Maroh)의 『파란색은 따뜻하다』(2010)는 동성 커플의 사랑 이야기이다. 클레망틴은 파란 머리의 엠마와 처음 대화한 날 “내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다. 내 핏줄 속에 빛이 돌아다니는 느낌이다”라고 썼다. 두 사람은 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엠마는 말한다. “이 세상을 구하려면 사랑밖에 없어. 사랑하는데 내가 왜 수치스러워해야 하지?”라고.

이 책은 2013년 압델라티프 케시시(Abdellatif Kechiche) 감독의 영화 <가장 따뜻한 색, 블루>로 제작되었다. 주인공의 이름이 클레망틴에서 아델로 바뀌고 엔딩도 달라졌지만, 동성 커플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인 것은 책과 다르지 않다.

이 영화에서 아델과 엠마, 엠마와 리즈 모두 동성 커플 가족이다. 책과 영화 속 동성 커플 가족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로 이 영화를 제작하기 15년 전인 1999년, 프랑스가 동성 커플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을 들 수 있겠다. 이 제도는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장을 받으면서 동거의 삶을 누리하고자 할 때, 동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등록, 공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의 결혼 외 동거 커플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세제 혜택, 사회 보장 급여, 휴가 등에서 혼인 가구와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이 높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책에서 클레망틴이 레즈비언인 것이 밝혀지자, 학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뿐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도 배척당했으니까. 영화에서도 사회적 분위기는 비슷하다.

제도는 부조리한 혐오와 편견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다. 비록 소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회에 이득이 되었다. 비단 동성 커플뿐 아니라, 법률혼을 원치 않는 이성 커플들이 이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자유로운 재생산(출산)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프랑스 혼외 출산 63% ...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산율 높여」(2023.05.13/뉴스테스크/MBC) 보도와 같이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과 연동시켜 주목하고 있지만, 시작은 동성 커플의 사회적 권리 보장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출산 운동



(childfree movement)이 전개되었다. 작가 엘런 팩(Ellen Peck)은 자녀를 낳지 않는 선택을 개인의 자유로 보고, 여성의 삶에서 반드시 출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통념에 도전했다. 그녀는 사회가 여성에게 모성의 역할을 강요한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 로라 캐롤(Laura Carroll) 역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문화적 강박을 산아 이데올로기(pronatalist ideology)로 규정했으며, 미국 메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에이미 블랙스톤(Amy Blackstone)도 『우리가 선택한 가족』(2019)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무자녀 커플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했다. 즉, 무자녀 커플 가족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인 가구 수는 2,255,298가구(전체 가구 수의 15.55%)였으나, 2010년 4,174,073가구(전체 가구 수의 23.86%), 2020년 6,476,735가구(전체 가구 수의 31.24%), 2030년 9,016,430가구(전체 가구 수의 38.62%)로 증가세를 보인다.

부산에서도 결혼과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2021년 부산문화재단에서 발간한 『부산청년 문화백서 청문청답』 5장의 주제는 「결혼에 관한 새로운 합의」였다. 이 장에 참여한 청년들은 기성의 결혼관과는 다른 주체적인 연애와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적극적 비혼, 미혼인 동거 등 기존의 법률혼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었다.

대가족, 따로 거주하지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에 사는 위성가족, 핵가족,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1인 가구, 비친족 가구(8촌 이내 친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집단시설 가구(6인 이상이 사는 세어 하우스 동거인)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 공동체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법 779조에서 정하듯이 혈연이나 법률혼만으로 가족의 구성을 정의하게 된다면, 실제 존재하는 가족 공동체들을 품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Koreeda Hirokazu) 감독의 영화 <브로커>(2022)는 가족은 누구이며 어떤 공동체라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기존의 제도나 관념의 해체와 재구성을 제안하는 행위이다. 이 영화는 2022년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등 국내외 유수의 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 이는 이 시대의 관객들이 영화의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 영화에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상현, 동수, 해진, 소영과 그녀의 아들 우성, 그들을 추적하던 형사들, 우성을 ‘버려진 아이’가 아닌 ‘지켜낸 아이’로 생각하는 윤씨 부부까지 모두 소영과 우성 모자를 지켜주는 또 다른 의미의 가족들이다. 소영의 대사처럼 기존의 결합 방식에 의하지 않은 ‘이상한 가족’이지만 영화 <브로커>는 그들을 가족으로 재구성시켰다.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의 조합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그 누구든 가족이 필요하다. 나를 지켜주고, 내가 지키고 싶은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

예술의 ‘새로움’을 위한, 부산과 서울의 ‘새로운’ 공연장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부산콘서트홀

2025년, 한국 공연계는 새로운 공연장이 개관하는 것을 넘어, ‘문명 전환기’를 맞고 있다. 4월에 문을 연 서울 GS아트센터와 6월 20일에 정식 개관 공연으로 시작을 알리는 부산콘서트홀이다. 각각 민간과 공공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다른 출발선이지만, 공연예술의 미래를 향하는 방향성과 상징성에서 두 공간은 서로 통한다.

미래 예술을 위한 실험실, GS아트센터

20세기가 21세기로 넘어오던 2000년대에 서울에는 몸집이 제법 큰 극장들이 여럿 생겼다. 그중 LG아트센터는 새 천년, 새 세기와 함께 탄생해 눈길을 끈 공연장이었다. 2022년 서울시 마곡으로 새로 옮기고 이름도 ‘LG아트센터 서울’로 바꾸기 전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던 LG아

트센터는 국내에서 접할 수 없지만, 세계 공연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미래지향적인 연극, 무용, 뮤지컬 등을 선보인 극장이었다. 관객들은 특정 장르를 가리기보다는 ‘LG아트센터’가 보여주는 첨단 예술의 시그니처를 믿고 티켓을 끊었던, 이른바 ‘LG아트센터 마니아’들이었다.

22년 동안 역삼동 시대를 주도했던 LG아트센터는 극장은 비워둔 채 마곡으로 떠났다. 그러던 중 빈자리의 새 주인이 나타났다. 비운 지 3년 만이다. GS타워 내 위치한 극장의 새 주인은 GS그룹이 설립한 GS문화재단이었고, 재단은 공연장(아트센터) 사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2025년은 GS그룹 창립 20주년인 해라서 GS아트센터 개관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극장 형태는 예전 그대로이 되, 객석은 100여 석 늘어난 1,200석 규모로 커졌다.

4월 24일, GS아트센터는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공연으로 테이프를 커팅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이자, 13년 만에 내한한 아메리칸발레시어터는 27일까지 고전 발레를 비롯해 모던발레, 컨템퍼러리 발레까지 아우르며 선보였다. 예술이란 전통과 현대의 시간이 맞물려 있는 문화임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한국 클래식 지도를 바꿀, 부산콘서트홀

작년 8월에 준공되어 올해(2025) 6월 20일 정식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은 4월 26일부터 시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총 5개 공연으로, 5월 23일 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 홍석원)의 마지막 공연까지 모두 매진되어 표 구하기가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다. 대부분 '무료'라는 이점도 있지만, 부산 시민들이 새로운 '소리의 공간'을 기다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부산콘서트홀은 2,01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400석의 소공연장을 갖췄다.

한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사를 보면 부산은 중요한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해외 유학을 통해 성장한 음악가들이 한국전쟁을 맞았을 때 그들의 피란처이자 제2의 활동지가 된 곳은 부산이었다. 1962년 창단된 부산시립교향악단도 서울 다음으로 '시립'의 교향악단이 제일 먼저 들어선 기록이 있다. '바다'가 주는 관광 자원과 예술을 접목한 축제들이 즐비했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음악가들도 여럿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고향에서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았는데, 부산콘서트홀은 이들에게 공연과 무대를 제공하고, 아시아의 해양 도시들이 음악으로 연결되는 '아시아 음악수도'의 거점기지로도 기능할 예정이다.

6월 20~21일 정식 개관 음악회에서 정명훈의 지휘,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과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선보인다. '황제'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축하하고, '합창'으로 생각과 목소리를 모으는 시간이다.

4개 공연으로 이어질 '파이프오르간 시리즈'도 눈에 띈다. '악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파이프오르간이 있는 국내 공연장은 세종문화회관(1978), 롯데콘서트홀(2016),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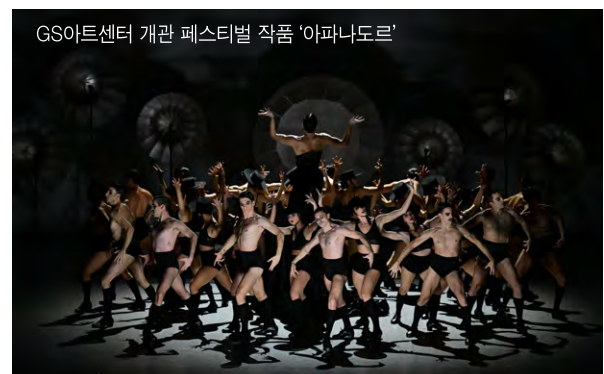
천아트센터(2023) 등 대부분 서울 중심이다. 부산콘서트홀은 오르가니스트 크리스티안 슈미트(7.12.), 올리비에 라트리(9.10.), 켄 코완(10.11.), 토머스 트로터(11.28.)를 초청해 이 시리즈를 이어간다.

공간이 시대를 만든다

GS아트센터도 특색 있는 공연들도 개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시각예술가 윌리엄 켄트리지가 음악과 연극, 무용, 문학과 드로잉 애니메이션, 영상, 움직이는 조각 등이 어우러지도록 꾸민 '시빌'(5.9~10.)이 오른다. '미래의 예술'은 만남, 협업, 상상력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스페인 출신의 마르코스 모라우가 안무한 '아파나도르'(4.30~5.1.), '파시오나리아'(5.16~18.), '죽음의 무도: 내일은 물음이다'(5.17~18.)은 예술이 향해 있는 미래의 지도를 펼쳐 보인다.

부산콘서트홀도 6월에 선보일 9일간의 개관 페스티벌로 한국 클래식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 조성진의 피아노 독주회(6.22.), 피아니스트 선우예권(6.23.)과 정명훈(6.25.)의 실내악 공연은 물론 이탈리아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9.18.), 런던 필하모닉(10.17.), 로열 콘서트헤바우(11.9.)의 내한 공연 등이 이어진다.

공연장이 단순한 '공연의 장소'였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콘서트홀은 한 도시의 예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며, 새로운 문명을 꿈꾸고, 문화를 바꾸는 전진 기지다. 서울의 GS아트센터가 '예술가의 제작 공간'을 중심에 두는 변화의 촉진자라면, 부산콘서트홀은 '부산이 음악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문과도 같다.



협업은 언제나 설레는 작업 안무가 이용진

글 박나무 자유기고가

1987년 초여름의 햇살보다 훨씬 뜨거웠던 유월항쟁이 거리를 뒤덮던 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교실 틈으로 새어드는 공포의 기운 속에서 묘한 희망의 냄새를 맡았지만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는 학력고사에는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 어려운 단어일 뿐이다. 대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망자의 혼을 위로한다고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엎어졌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춤을 추었다. 슬픔에 짓눌렸지만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결국 죽지 않음을 웅변하는 듯 하얀 장삼자락은 허공에 흩날렸다. 화면 속에서 만난 길지 않은 춤사위는 뭘 모르는 학생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집회와 시위는 말의 향연이지만 어떨 때는 침묵이, 또 다를 때는 몸짓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나보다. 결국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말기고 대통령직선제와 헌법재판소, 최저임금제 따위를 빌려왔지만 아직 제대로 갚아내지를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춤은 참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인 행위다.

BTS의 화려한 군무로부터 전국노래자랑의 돌발적이나 꾸준한 춤사위, 교실 뒤편에서 매일같이 펼쳐지는 작은 공연들이 또다른 ‘스우파’를 꿈꾸고, 춤바댄스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피트니스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금지된 행위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욕망하는 춤추기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어떤

노래교실과 노래방에선 노래보다 춤에 집중하는 춤꾼이 있으리라. 어린 아이들은 대체로 춤추기를 즐기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이 더 심해지거나 소멸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춤은 태초의 행위,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말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사랑도 분노도 기쁨도 다 몸짓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말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어쩌면 춤과 몸짓은 퇴보한 건 아닐까? 갑자기 수만년 전 내 핏줄의 춤사위를 보고 싶다. 어떤 약속된 몸짓,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춤인가 하지만 마구 움직이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몸부림도 춤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일까? 그럼 오늘은 몸짓이라고 하자.

오늘 만날 안무가 이용진은 무대에서 배우들에게 몸짓을 일러주는 사람이다. 이용진은 이름난 춤꾼이기도 하면서 안무가이기도 하고, 예술창작집단 '에게로'의 대표이기도 하다. 탁월한 춤꾼이니까 다른 사람의 춤을 만들고 지도해줄 안무가이기도 하겠지만, 비전문가인 배우들의 몸짓을 만들거나 가르치려면 저어되거나 힘들지 않은지를 물었다. “저는 다른 장르와 협업하는 게 참 좋아요. 그것은 또 다른 배우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선 불러주면 재미있겠다 싶어 달려가고 또 실제로 재미있습니다. 특히 연극무대는 더 매력적이지요. 조금만 건드려주면 발성이 달라지고 몸의 선이 살아납니다. 몸짓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참 보람있는 작업입니다” 한 우물만 주로 파 온 사람에게서 느껴질 법한 고집이나 괴팍함 같은 게 없다. “그저 저는 춤꾼으로 직업을 택한 것일 뿐이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분들의 직업이 훨씬 어려워 보이고 또 특별해 보입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도울 것은 도와가며 사는거죠. 협업이란 건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설레는 작업입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방대한 도서관이지요. 저는 도서관에 가는 걸 즐깁니다.” 그이는 춤 출 때는 춤을 추어 행복하고, 가르칠 때는 가르쳐서 보람 있고, 쉴 때는 쉬어서 편안할 것만 같다. 혼자 일하기에도 함께 일하기에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용진은 거리에서 춤추기를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춤추고 땀내기를 좋아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배우고 또 몸을 내던졌다. 그러다가 몸이 망가져서 병명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몸짓의 신비함을 깨닫기도 했단다.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파고 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치유되기 시작했더니 춤꾼으로선 독특하면서도 소중한 경험을 지나왔다. 마구 내던지던 춤을 다듬고 또 가르쳐보려고 부산예술대와 경성대와 부산교대에서 무용을 전공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무용과 신체에 대한 불교적 해석’이 그이의 석사학위 논문이다. 머리칼은 긴데 마치 스님같기도 하다. “우선 대본을 살피고, 출연진들과 만납니다. 출연진들의 몸과 그 상태를 파악하는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배우의 신체에서 가장 최적화된 동작을 뽑아내는 게 안무가의 역할입니다.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될 일을 되게 하는 거죠. 쉽다면 쉽겠지만 될 일이 안 되는 걸 많이 보고 있으니 저의 역할도 있는 것이겠죠”

공간소극장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극단 가마골의 <실업자들>, 부산시립예술단의 <가마솥 뽀빠> 등이 최근 그의 손길을 거쳐간 공연들이다. 때로는 배우의 손짓 하나가 수많은 대사들을 압도하기도 한다. 가성비로 따지면 몸짓이 갑이다. 다양한 장르와 매체가 결합한 다원예술이라 하여 무용과 연극, 미술과 연극이 어우러진 공연에서도 안무가 이용진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그는 예술집단C가 주관한 <Red heel> <토끼 h의 시간> <뽀> 등에서 움직임 연출과 안무를 맡았다. 그이가 속한 집단 '에게로'에서 맡은 공식적인 직함은 예술감독. 예술을 감독한다는 언밸런스한 단어지만 안무가 이용진에게는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무엇일까? 두려움 없이 장르와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그이의 활약이 더 많은 누리에 펼쳐지길 바란다. 앞으로의 공연은 안무가가 있는지, 안무가는 누구인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다.

• 댄스 프로젝트 에게로
www.youtube.com/@danceprojectegero9271



최소한의 질서를 향해, 데 스틸

글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1915년, 과묵한 몬드리안과 활발한 테오 반 도스버그(Theo van Doesburg, 1883~1931)가 만났다. 반 도스버그는 자신이 몬드리안의 예술세계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어필했다. 둘은 곧 마음을 한데 모았고, 이는 1917년 잡지 <데 스틸>의 창간과 데 스틸(De Stijl, 영어 The Style) 미술운동으로 이어졌다. 반 도스버그는 몬드리안과 같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회화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몬드리안과 달리 회화, 문학, 디자인, 출판, 건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재다능한 끼를 주체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화가로 활동하던 초기, 반 도스버그는 반 고흐 화풍의 그림을 그리다가, 1910년대 이후 추상미술을 접한 뒤 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를 ‘데 스틸’이라는 종합 예술운동으로 승화하여 유럽에 확산시켰다. 러시아에서 구축주의를 중심으로 예술과 일상의 결합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 유럽에서도 형성된 것이다. 추상미술은 일상과 동떨어진 어려운 미술이라는 우리의 통념과 달리, 그 어떠한 미술보다도 예술과 삶의 관계에 고민했음을 구축주의와 데 스틸이 증명한다.

몬드리안, 반 도스버그를 비롯한 이 운동에 동참했던 예술가들은 1918년 <데 스틸>에 네 언어로 된 선언문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전쟁의 폭력과 분열에 맞서 “삶, 예술, 문화의 국제적 통합”을 지향하는 원대한 목표가 담겼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보편적 양식



게리트 리트벨트, <빨강 파랑 의자>, 1918~1923, 목재에 채색, 86.7×66×83.8cm,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 2025 Artists Rights Society(ARS), New York/Beeldrecht, Amsterdam

이 필요했는데, 이 양식은 역사적, 지역적, 개인적 특수성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했다. 왜냐하면 20세기 초에 일어난 비극은 특정 민족, 인종, 국가만의 우월성과 이익을 강조한 결과이며, 물질적 발전이 곧 그 우월성을 뒷받침해 주었기에 예술가들은 이에 반대하여 개별성을 초월하는 보편성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성은 기존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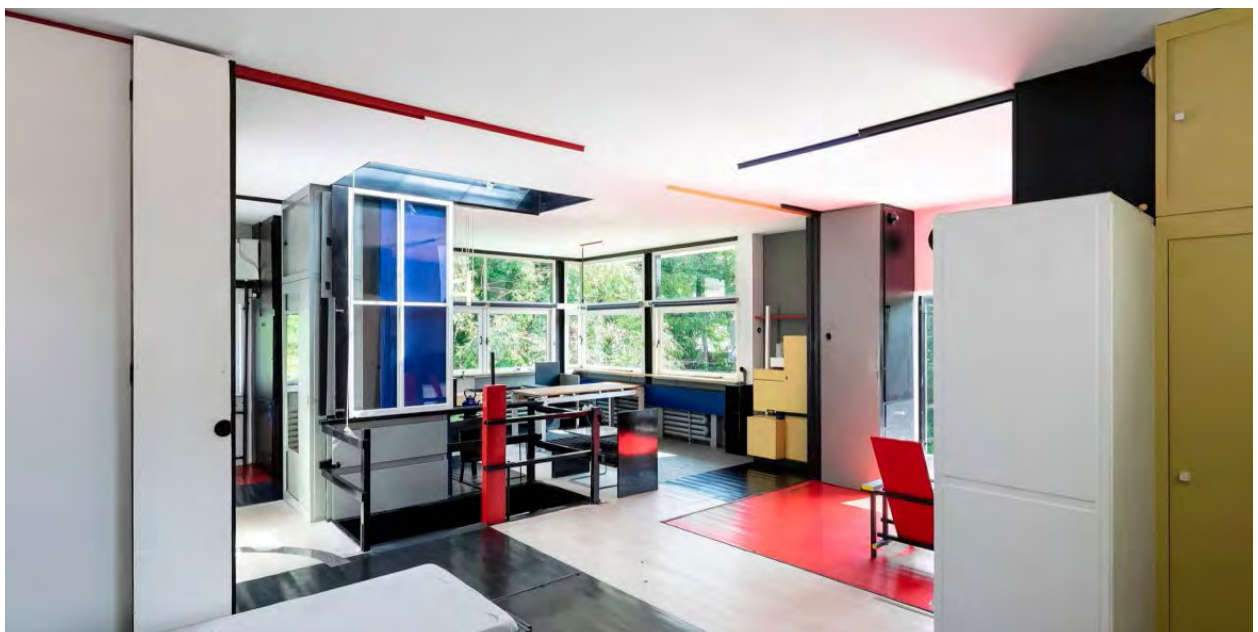
세계의 모방이 아닌, 순수한 정신이 반영된 추상미술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다고, 적어도 예술가들은 그렇게 믿었다.

이때 삼원색(빨강, 파랑, 노랑)과 무채색(검정, 흰색), 수직과 수평의 격자로 이루어진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는 국제양식의 발판이 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몬드리안의 추상미술은 각자 다른 형태와 색채를 지닌 사물에서 공통점을 추출하여 생성된 것으로 추상을 통해 세계의 보편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보다 더 어떻게 간결하게 다종다양한 세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 신조형주의는 미술을 넘어 건축, 각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도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었고 디자이너,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의 데 스틸 참여자들은 신조형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회화로만 존재하던 신조형주의가 드디어 가구, 인테리어, 건축, 출판물 등 인간의 실질적인 삶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데 스틸의 초기 멤버인, 가구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Rietveld, 1888~1964)는 신조형주의가 일상의 사물로 탄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리트벨트의 <빨강 파랑 의자>(1918~1923)는 몬드리안의 회화가 마치 3차원으로 구현된 것 같다. 안락해 보이지는 않지만, 수직과 수평의 프레임, 삼원색과 검정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색채는 몬드리안의 사각형을 떠올리기 충분하다. 하지만 실용성을 뒤로하고라도 리트벨트의 의자에서 중요한 점은 수직과 수평, 삼원색과 무채색이라는 몬드리안이 보여준 보편성의 문제가 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표준화의 문제로 직결되는 지점이다. 그의 의자는 도면만 있다면 현대의 그 어느 공장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조립할 수 있다. 리트벨트가 만든, 지역과 장소를 초월한 심플한 디자인의 조립식 가구는 지금의 이케아식 가구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리트벨트는 1924년에 설계한 위트레흐트(Utrecht)의 ‘슈뢰더 하우스’를 통해 신조형주의를 건축에 응용했다. 건축 의뢰자였던 젊은 미망인, 슈뢰더 부인의 이름을 딴 슈뢰더 하우스는 커다란 저택에서 살던 의뢰자가 실용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잘 짜인 집을 원하는 결과 탄생했다. 주택은 마치 현대의 원룸처럼 거실, 부엌, 침실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했고, 칸막이를 통해 공간을 분리하거나 합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한편, 건물 외부와 내부는 몬드리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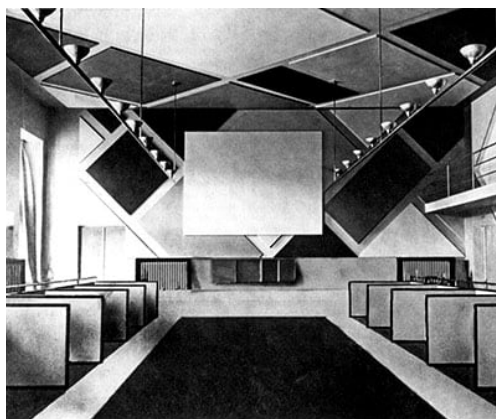
게리트 리트벨트, <슈뢰더 하우스>, 1924, 위트레흐트, © Centraal Museum, Utrecht/Stijn Poelstra/Pictoright, Amsterdam © DACS 2024

회화를 그대로 옮긴 것처럼, 간결한 수직과 수평 구조와 삼원색,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트벨트가 설계한 주택은 지금의 현대주택과 비교해도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과 공간 구성을 자랑한다. 신조형주의의 종합적 구현인 데 스틸의 정수가 담긴 슈뢰더 하우스는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데 스틸이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 주역은 반 되스버그였다. 그는 잡지를 만들어 데 스틸을 소개하고, 데 스틸



테오 반 되스버그, <역-구성 V>, 1924, 캔버스에 유화, 100×100cm,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암스테르담



테오 반 되스버그, 카페 오베트의 시네마 댄스 홀, 1928, 스트라스부르

식의 건축, 실내장식 디자인 등을 하는 등 그의 활동 범위에는 경계가 없었다. 데 스틸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지만, 양식에서만큼은 신조형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 원리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지점이 러시아 구축주의자들과 달랐다. 구축주의자들은 “예술을 삶 속으로!”라는 목적의식을 공유했지만, 특정 양식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데 스틸은 하나의 원리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자 하였기에 그것은 데 스틸을 다른 양식과 구분해 주는 동시에, 참여 예술가 개인에게 족쇄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즉 데 스틸 참여자들은 뭘 하든 ‘몬드리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반 되스버그는 데 스틸의 한계를 깨닫고 고정된 양식에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역-구성 V>(1924)에서와 같이 대각선을 넣기 시작했다. 그는 타틀린이나 리시츠키와 같은 구축주의자들의 작품에서 대각선이 주는 활기찬 에너지를 발견한 것이다. 반 되스버그가 디자인한 카페 오베트의 ‘시네마 댄스 홀’(1928)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장식은 수직과 수평 대신 대각선이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는 댄스 홀이라는 공간의 목적에 맞게 대각선을 사용하여 동적인 느낌을 부여했다. 반 되스버그는 대각선을 통해 데 스틸의 한계를 돌파하는 반면, 몬드리안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대각선’으로 인해 몬드리안과 반 되스버그는 갈라서게 되었다. 몬드리안은 자신의 신조형주의가 세상의 본질을 표현한 것이기에 ‘대각선’은 군더더기라고 생각했고 1925년 데 스틸 운동과 완전히 결별하였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깔끔한 형태와 삼원색이 주는 명료함 등 데 스틸이 추구한 기하학적 추상은 이후 단순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미술에 영향을 끼쳤고, 생활 전반에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스며들었다. 데 스틸 예술가들은 과도하게 물질적 삶에 몰두하는 20세기 초의 시대상에 대한 대응으로 개별성을 초월하는 보편성과 본질을 추구하였는데, 이들의 의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대량생산, 규격화, 표준화와 맞물려 오히려 산업자본주의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세련된 스타일’이란 ‘단순함’, ‘본질’과 떼어놓기 때문이다. 구축주의, 데 스틸에서 보여준 현대 생활의 미감은 독일 바이마르에서 종합된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들뜬 열망이 러시아와 유럽의 예술가들을 바이마르로 불러 모았다.

INVITATION TO THE

가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대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부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성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영

액터스소극장	611-6616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SUN

MON

TUE

WED

사랑채 극장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 3월 5일(수)-6월 1일(일) 평일 오전 10:30(단체관람),
주말·공휴일 오전 11:00 ※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시실

<Loop Lab Busan> 연계전시
타임큐비즘 Time Cubism
· 4월 18일(금)-5월 10일(토) ※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입장마감 오후 5:30)

한국추사서화에술전국공모대전
· 5월 15일(목)-5월 17일(토)
한국추사서예가협회 632-7077

제45회 전국서도민전
· 5월 21일(수)-5월 25일(일)
한국서도예술협회 010-2839-1842

4

부산시립합창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17:00
대 2만원1만4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5

6

7

소프라노 김가은 귀국 독
참 무료/아트매니지먼트

11

김창욱 토크콘서트 시즌5 13:00, 17:00
대 8만8천원7만7천원6만6천원
(썬하늘이엔티(1688-6675))

12

13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5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5 부산음악대축제 I '신인음악회' 19:30
중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

14

2025년 부산공무원합창
19:00
대 무료/부산공무원합창
2025 부산음악대축제 II
중 무료/(사)부산음악협회

18

19

20

2025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음악회'
19:30
중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
서혜원 피아노 독주회 19:30
참 초대/서혜원(010-2545-2513)

21

양옥진 첼로 리사이틀 1
참 2만원1만원/양옥진(0

25

26

27

2025 제4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대 부산MBC(760-1125)
2025 제4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중 부산MBC(760-1125)
2025 제4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참 부산MBC(760-1125)

28

2025 제41회 부산음악
대 부산MBC(760-1125)
2025 제41회 부산음악
중 부산MBC(760-1125)
2025 제41회 부산음악
참 부산MBC(760-1125)

ED	THU	FRI	SAT
	1	2	3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단체관람)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10: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607-3113~4)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크리스티안 테를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중 7만원 5만원 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부산시립합창단 제196회 정기연주회_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11:00, 15:00 대 2만원·1만4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영옥&김다솔 듀오 콘서트’ 17:00 중 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8	9	10
❖ 창회 19:30 이랑(010-9338-8485)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 아이 음악회’ 19:3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이지은 피아노 독주회 19:30 책 무료/이지은(010-7771-1830)	❖ 부산시립무용단 제91회 정기공연 ‘남풍-다시 만난 숲’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단체공연) ‘우리 아이 음악회’ 10: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607-3111, 3113)	❖ 부산시립무용단 제91회 정기공연 ‘남풍-다시 만난 숲’ 15:0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음악포럼 창립 20주년 기념 제20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7:00 책 초대/부산음악포럼(010-3885-6600)
	15	16	17
합단 B-STAR 정기공연 (888-5234) ‘실내악의 밤’ 19:30 회(634-1295)	2025 부산음악대축제III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 19:30 대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 제59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19:30 중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5661-3086)	2025 부산음악대축제IV ‘오페라 갈라콘서트’ 19:30 대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 제59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19:30 중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5661-3086)	 <

SUN

MON

TUE

WE

전시실

AI×Fashion: 신해체주의, 경계를 허물다
· 5월 2일(금)-5월 4일(일) 전시실 1
이경림 010-9155-1661

제39회 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전시
· 5월 7일(수)-5월 10일(토) 전시실 1
부산사진작가협회 631-4111

한일 꽃꽂이-이케바나 교류전
· 5월 15일(목)-5월 16일(금) 전시실 1, 2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010-7375-7537

아름다운 규방공예(고운손길전)
· 5월 28일(수)-6월 1일(일) 전시실 1
빛살고운 규방 010-4581-2907

4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무용제' 17:00
대 (사)부산무용협회(632-5116)

5

6

7

김수연 명창과 함께하는 3
대 락음국악단(010-330

2025 제43회 부산연극제 워크숍 공연 '버려진 아이
소 부산연극협회(645-37

11

12

13

14

2025 제43회 부산연극제 해외 연출가 초청
워크숍 공연 '오레스테스' 19:30
소 부산연극협회(645-3759)

18

19

20

21

25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지팡이' 11:00, 14:00, 16:30
대 전석 6만원/(주)더화랑이엔티(1800-6567)

2025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일본 극단 Mum & gypsy '체어/일 포스트' 18:00
소 전석 3만원
부산국제연극제(802-8003, 010-5388-8033)

26

27

28

2025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
극단 배우창고 '워 아이니
소 전석 3만원
부산국제연극제(802-8

D

THU

FRI

SAT

1

2

3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_영화음악이야기 10:30
대 문화유목집단동행(010-2026-8280)

2025 시민뜨락축제 '국악그룹 길, 마음버스
포크밴드' 12:1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15:00
소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8

9

10

호 큰잔치 19:00
4-7011)

2025 부산유니온발레단 정기공연
창작발레 '보은의 꽃' 14:00(단체관람), 19:30
대 6만원·4만원·3만원·2만원
부산유니온발레단(010-8544-1442)

2025 제43회 부산연극제_해외 연출가 초청
워크숍 공연 '새들의 회의' 19:30
소 부산연극협회(645-3759)
2025 시민뜨락축제 '쥬드밴드, 아이씨밴드' 12:1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5 제43회 부산연극제_해외 연출가 초청
워크숍 공연 '자유' 19:30
소 부산연극협회(645-3759)

15

16

17

2025 제43회 부산연극제_해외 연출가 초청
워크숍 공연(특별공연) '일장춘몽' 19:30
소 부산연극협회(645-3759)

2025 제43회 부산연극제_해외 연출가 초청
워크숍 공연 평가회 19:00
소 부산연극협회(645-3759)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나의 시, 나의 노래'
17:00
대 12만1천원·9만9천원·8만8천원·6만6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2

23

24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지팡이 대소동' 11:00, 14:00, 16:30
대 전석 6만원/(주)더화랑이엔티(1800-6567)

2025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일본극단 Mum & gypsy '체어/일 포스트' 18:00
소 전석 3만원
부산국제연극제(802-8003, 010-5388-8033)

29

30

31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19:30
대 15만원·13만원·9만원·5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5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극단 배우창고 '워 아이니?(War 愛)' 19:30
소 전석 3만원
부산국제연극제(802-8003, 010-5388-8033)

뮤지컬 '바다 100층파리 집' 11:00, 14:00, 16:30
대 1층 7만원(예매시 할인)/탑월드(1800-7672)

2025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시티오(SITIO) '어센션' 15:00, 18:00
소 전석 3만원
부산국제연극제(802-8003, 010-5388-8033)

COVER STORY

Canada's National Arts Centre Orchestra

품격 있는 사운드로 선사하는 혁신과 열정의 선율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 Curtis Perry

© Marco Borggreve

with Yeol Eum Son

혁신적인 시도로 유명한 캐나다의 대표 오케스트라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이하 NAC 오케스트라)’가 5월,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이번 내한공연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함께 한다.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 NAC 오케스트라 첫 내한

수도 오타와를 거점으로 하는 NAC 오케스트라는 1969년 창단 후 품격있는 사운드와 사회를 반영하는 예술적 비전을 보여주며 시대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포용, 창의성, 관용, 지속 가능성, 참여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모든 활동의 근간으로 삼으며, 특히 열정 넘치는 명확한 연주와 대담한 프로그램,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음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오케스트라로 인정받고 있다.

2024년 발매한 음반 <우리 시대의 진실>은 미국 작곡가 필립 글래스의 ‘교향곡 제13번’ 최초 녹음을 비롯하여 코른골트,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캐나다 현대음악 작곡가의 작품까지 포함하며 새로운 레퍼토리의 탐구와 반전(反戰) 메시지를 담아내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슈를 예술적으로 조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NAC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높은 수준의 음악과 예술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예술을 통해 환경과 사회적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며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혁신과 열정을 이끌다 지휘자 알렉산더 셸리

오랜 기간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거장 핀커스 주커만의 뒤를 이어 2015년부터 NAC 오케스트라의 음악감

독으로 있는 지휘자 알렉산더 셸리는 주커만이 남긴 유산 위에 단체의 예술적 비전을 구체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NAC 오케스트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셸리는 현대적이고 독창적으로 고전

을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 작곡가들을 포함한 현대 음악가의 작품을 소개하는데 적극적으로, 음악감독 취임 후 NAC 오케스트라를 ‘북미에서 가장 대담한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런던, 파리, 코펜하겐, 스톡홀름에서 50주년 기념 유럽 순회연주회를 진행하여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2022년 4월에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카네기 홀에서의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그는 현재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부지휘자이자 미국 플로리다의 아티스-네이플스와 네이플스 필하모닉의 예술음악감독을 겸하고 있다.

섬세한 터치와 깊은 음악성 한국의 대표 피아니스트 손열음

NAC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서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201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 연주상을 수상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미 초등학교 5학년이던 1997년 차이콥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1위 없음) 입상하여 이듬해인 1998년 7월, 금호문화재단이 영재 발굴



© Rémi Thériault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금호영재콘서트에 첫 주자로 발탁되면서 음악계에 데뷔하였다. 이후 1999년 오벌린 국제 콩쿠르, 2000년 에틀링엔 국제 콩쿠르, 2002년 베르첼리 비오티 국제 콩쿠르에서 모두 최연소로 우승하였고, 2005년 텔아비브에서 열린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 수상하며 국내외 음악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2009년에는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최우수 실내악 연주상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만 열여덟의 나이에 거장 로린 마젤에게 발탁되어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아시아 투어의 솔리스트로 참가하기도 했다. 제1회 ‘금호음악인상’, ‘난파음악상’, 문화체육관광부의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고 동아일보의 ‘한국을 빛낼 100인’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2022년 해외 오케스트라에서 활약중인 한국음악가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음악가들을 결집한 악단 ‘고잉홈프로젝트’를 결성, 한국 클래식 음악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아이콘으로 성장했으며 제10회 홍진기 창조인상, 제3회 포니정 영리더상, 제13회 대원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 NAC 오케스트라는 고전부터 후기 낭만, 인상주의, 그리고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1부는 R. 슈트라우스의 ‘돈 후안’으로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돈 후안’은 정교한 관현악법과 함께 영웅적인 기상, 그리고 애절한 사랑의 선율이 어우러진 걸작으로,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해석이 빛날 예정이다. 이어 캐나다 출신 현대음악 작곡가 켈리마리 머피의 위촉곡인 ‘어두운 밤, 빛나는 별, 광활한 우주’를 한국 초연, NAC 오케스트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캐나다 고유의 색채를 보여준다. 1부의 마지막 곡은 프랑스 작곡가 라벨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며 프랑스 음악의 색채와 라벨 특유의 섬세한 관현악법이 돋보이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을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들려준다. 2부에서는 베토벤 작품 중 가장 유명하며 혁신적인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운명의 동기’로 시작하여 비극적 운명을 거스르고 자 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환희에 찬 피날레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 Curtis Perry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일시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금액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무용단 제91회 정기공연 남풍-다시 만난 숨

부산시립무용단이 2025년 첫 정기공연으로 '남풍-다시 만난 숨'을 무대에 올린다.

특히 이번 작품은 예술감독 이정운이 2019년 부산시립무용단과 처음 호흡을 맞췄던 '南風-South Breeze'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한 무대로, 춤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동시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이다.

이번 무대에서 '남풍'은 인간의 내면에서 불어오는 의지의 바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아름답고 역동적인 한국무용으로 풀어낸다. 여기에 한국춤의 독특한 호흡기법과 유연한 신체 움직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숨'을 형상화하고 시각화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형의 예술인 춤에 첨단 기술을 더해 한층 더 감각적인 무대를 완성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연출이 더해지며,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는 실험적이고 아름다운 시도가 펼쳐진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단순한 안무를 넘어,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무용 공연을 체험하게 된다. 이번 시도는 지난 2019년 무대에서도 활용되며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당시에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정운 예술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춤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고, 기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감정과 호흡을 눈앞에 펼쳐 보이며,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현재 부산시립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이정운 예술감독은 그동안 다양한 창작무대를 통해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며 탁월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무용계 간판스타로,



2002년 국립무용단 입단 첫 해 주역무용수로 데뷔한 후 국립무용단 대표 무용수로 자리매김하며 2014년 퇴단하기까지 수석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했다. 2019년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선임에 위한 경선무대였던 제80회 정기공연 '남풍-South breeze'을 통해 평가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한 창의적인 무대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듬해 8월, 신임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 이정운 예술감독은 이후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 한국춤의 전통성과 국제적인 감각으로 동시대를 아우르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춤 콘텐츠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1973년 대한민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한 부산시립무용단은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우리 춤을 계승 발전시켜왔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창단 50주년이었던 지난 2023년을 새로운 도약의 기점으로 삼아, 다양하고 독창적인 공연과 기획으로 영남을 아우르며 우리 춤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레퍼토리의 개발에 더욱더 힘쓰고 있다. 특히 부산시립무용단의 춤 콘텐츠화 및 국가 브랜드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제작된 춤 '본색'은 '춤의 가치, 본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집약된 부산시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5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10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정태춘 박은옥 콘서트

나의 시, 나의 노래

시대의 아픔과 인간을 노래하는 가수 정태춘·박은옥이 2025년 봄, 새로운 음반 출판과 함께 전국투어 콘서트를 갖는다.

한국의 ‘음유시인’이자 ‘저항포크’의 대명사로 불리는 정태춘·박은옥은 1978년 ‘시인의 마을’과 1979년 ‘회상’으로 각각 가요계에 데뷔했다. 그들은 1980년 부부의 연을 맺으며 음악적 동료이자 삶의 동반자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왔다. 특히 정태춘은 한국적인 멋, 서정성 짙은 가사, 깊은 음색을 가진 싱어송라이터로, 1980~90년대 한국사회의 모순과 그 저항을 노래로 표현하며 실천해온 문화운동가이기도 하다. 데뷔 앨범 수록곡인 ‘시인의 마을’, ‘촛불’이 큰 사랑을 받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그의 행보는 대중성과는 달랐다. 1990년에 발표한 비합법 음반 ‘아, 대한민국’, ‘92 장마, 종로에서’를 통해 사전심의 제도에 저항했고, 이는 1996년 사전심의제도 폐지(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로 이어졌다. 이후 2007년에는 ‘한국대중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했고, 앨범 ‘시인의 마을’, ‘아, 대한민국’, ‘92년 장마, 종로에서’ 등은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정태춘·박은옥은 데뷔 45주년을 문학으로 기념하기 위한 ‘2025 정 박 문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12번째 정규 앨범 ‘집중호우 사이’는 지난 4월, 2012년 발표된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 이후 13년만에 출시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음반에는 70대에 들어선 싱어송라이터 정태춘의 긴 노래 여정에서 이제는 문학적 완성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노래 10곡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음반은 오랜 기간 절필에 들어가 본인 스스로 ‘이제 더 이상은 새 노래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던 정태춘이 문학적 욕심으로 완성한 음반으로, 긴 노래 창작 공백기에 써두었던 시와 단문들, 그의 ‘붓글’ 속에 담긴 텍스트들을 토대로 현재의 상상력과 시적 언어로 풀



어낸 마치 한 편의 ‘시집’과도 같은 음반이다. 이 음반 속 노래 가사 10편은 문학 계간지 ‘시와경계’ 2024년 봄 호에 특집으로 실리기도 했다.

정태춘·박은옥은 이번 무대에서 ‘집중호우 사이’, ‘기러기’, ‘민들레 시집’, ‘하동언덕 매화놀이’ 등 새 앨범 수록곡을 비롯하여 ‘시인의 마을’, ‘촛불’, ‘떠나가는 배’, ‘북한강에서’와 같은 기존 대표곡을 들려준다. 특히 8인조 밴드의 앙상블과 함께 노래와 시 낭송, 붓글 영상, 사진과 텍스트들로 펼쳐지는 시각 콘텐츠들이 더해져, 음악적 감동뿐만 아니라 시적, 문학적 울림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출로 이제까지 구현하지 못했던 ‘문학적인 콘서트’를 만날 수 있다.

5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6만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바리데기

부산시립예술단의 새로운 연합공연 ‘바리데기’가 무대에 오른다.

‘바리데기’는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 창작칸타타 ‘가마솥 뫼산’에 이은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신작으로, 합창단과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등 예술단 6개단체의 융복합 공연으로 선보인다.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대본과 작사, 연출을, 작곡가이자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인 김창환이 작곡과 편곡을 맡았으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이동훈 예술감독이 지휘를,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운 예술감독이 안무를 맡아 출연 단체의 개성과 역량을 살리면서 춤과 극,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설화 속 ‘바리데기’는 옛날 옛적 오구대왕과 길대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번째 딸로, ‘버린 아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가까이 아버지를 위해 제 한 몸 희생하여 지옥까지 다녀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효녀 이야기로,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로 각색되어 무대에 올려져왔다. ‘바리데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강조하는, ‘가족’을 모티브로 한 도덕적 소재로, 우리나라의 전통설화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된 정서로 볼 수 있다. ‘엄마 찾아 삼만리’, ‘은하철도 999’를 비롯한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은 엄마를 되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고 근래에 흥행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도 조각난 가족애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 또한 불교의 지장보살 설화는 바리데기 설화와도 거의 흡사하다.

김지용 예술감독은 현대에 와서도 ‘바리데기’ 플롯과 주제가 유효한 것은 결핍의 극복에 있다며 설화에서도, 현대의 작품에서도 결핍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베풀고 적극적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바리데기’ 역시 이러한 과정을 따르면서, 살리기 위해 버려진 아이 ‘바리’는 고난에 시달리지만 고통 받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줌으로써 그들을 구원한다. 김지용 예술감독은 특히 재구성을 통해 병에 걸린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한 약수를 구하는 효의 실천보다는, 버려졌다는 내면의 결핍을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는가에 방점을 찍으면서 고전의 깊은 메시지와 현대적인 창의성을 결합,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대본·작사·연출 김지용



작·편곡 김창환



지휘 이동훈



안무 이정운

5월 22-23일 목-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3:00 ※ 23일 오후 2:00(예술교육공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0회 정기연주회

NEW WORLD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에서 제620회 정기연주회를 펼친다.

오는 6월 20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산콘서트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1만9862㎡)로, 대공연장인 콘서트홀(2011석)과 소공연장인 챔버홀(400석)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최초의 빈야드 스타일의 공연장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하며, 비수도권 최초로 '악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파이프오르간을 설치, 4,406개의 파이프가 만들어내는 장엄한 울림과 압도적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무대는 부산콘서트홀의 정식 개관을 앞두고 열리는 시범공연의 일환으로, 홍석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 '주피터'와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첫 무대인 만큼 티켓 오픈 1분 만에 2천 석이 넘는 좌석이 매진되는 등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끄는 예술감독 홍석원은 '젊은 명장'이라는 찬사와 함께 오늘날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지휘자로, 탁월한 음악성과 다양한 음악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관현악 레퍼토리는 물론 현대음악과 오페라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1962년 창단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국내에서 세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오케스트라로, 최근에는 동시대 음악작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2017부터 2019년까지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라벨의 관현악곡 전곡 사이클을 국내 최초로 도전하여 성공적으로 완주한 바 있다.

이번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축하하며 준비한 첫 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 '주피터'로, 모차르트 최후의 교향곡이자 '고전 교향곡의 전형'이라고 극찬 받는 작품이다. 신들의 왕인 '주피터'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희망차면서도 당당하고 기품이 있어 개관 축하곡으로도 손색 없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는 그가 남긴 9개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향곡이자 낭만주의 시대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작품이다. 체코 출신인 드보르자크가 미국의 국립음악원 원장으로 있던 시절, 새로운 대륙의 감상을 그대로 음악에 옮긴 작품으로, 오늘날 새로운 시작을 알리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에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이다.



5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입장료
무료(예약 필수)

문의
부산콘서트홀 640-8825

Sound of Busan #3: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교향곡 제4번

부산 클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들이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세 번째 무대가 5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Sound of Busan’은 (재)부산문화회관이 2025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기획공연 시리즈로, 올해는 민간 오케스트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로 관객과 만난다. 세 번째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는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 7월 창단 후 2015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민간 오케스트라로, 특히 2013년부터 5년간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했으며 유튜브, 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공연 실황과 대담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며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로지 음악의 본질과 깊이로 수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임지휘자 홍성택의 지휘로,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그리고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첫 곡인 ‘대학축전’ 서곡은 브람스 자신이 ‘웃는 서곡’이라고 칭할 만큼 축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밝고 유쾌한 곡으로, 여러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Sound of Busan’의 축제 분위기를 살리고자 직접 선택한 곡이다.

이어지는 곡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는 베토벤을 깊이 존경하여 그의 음악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려했던 브람스의 의지가 담긴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노운화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존스 홉킨스 피바디 음대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인디애나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노운화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며 ‘관객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시키며 색채로 가득한 모험을 시켜주는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마지막 무대로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은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브람스가 베토벤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교향곡의 독보적인 색깔을 표현하는 클라리넷과 비올라의 중음, 첼로와 호른의 저음이 강조된 무채색의 사운드, 그 사이사이에 간간히 묻어나는 진한 고독감은 인생의 말년에 접어드는 브람스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깊이를 담고 있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휘 홍성택



피아노 노운화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가족뮤지컬 **엄마, 같이 걸을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뮤지컬 ‘엄마, 같이 걸을까’를 무대에 올린다.

사춘기가 시작된 딸과 그런 딸을 이해하려 애쓰는 엄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족간의 갈등과 사랑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엄마, 같이 걸을까’는 지난해 첫 무대에서 도 감동적인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학업과 스트레스에 지친 딸은 엄마와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고 가출한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하던 딸은 우연히 10대 시절의 엄마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엄마도 자신과 똑같이 고민하고 방황했던 시절이 있음을 깨닫는다. 엄마 역시 오래된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떠올리며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결국, 길에서 재회한 엄마와 딸은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화해하며,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특히 이번 ‘엄마, 같이 걸을까’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다시한번 되새겨볼 수 있어 가정의 달, 부모와 자녀가 함께 관람하기 좋은 작품이다.

오프닝을 시작으로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솔로부터 중창, 합창 등 다양한 편성의 노래와 연기, 영상으로 진행된다. 첫 곡인 ‘우리집’을 시작으로 ‘쉽이 필요해’,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그냥 싫어!’, ‘웃는 거야’,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통’, ‘Show me a smile’, ‘선물’, ‘행복을 주는 사람’ 등 다채로운 곡이 연주된다.

이번 무대는 천경필 수석지휘자가 지휘하고 인천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KBS 청춘합창단 등 다수 합창단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다수 어린이 합창단의 안무, 연출을 맡고 여수엑스포, 순천정원박람회, 광복 70주년기념 평화콘서트, 한아세안회의 기념음악회, 임진각타종 행사 등 다수 행사를 연출, 기획한 김희연이 대본과 연출을 맡았다. 현재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며 어린왕자, 크리스마스 캐롤, 창수책방, 리어왕, 토지 등 다수 무대에 출연한 배우 이사라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서며 신디사이저 김보은, 타악기 김진훈, 김은호가 연주를 맡아 보다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지휘 천경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5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천원, S석 2천원
(만 6세 이상 관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1세기 새로운 예술적 사조의 흐름을 알리다

2025 Loop Lab Busan

‘타임 큐비즘 Time Cubism’

일 시 4월 18일(금)-5월 10일(토) *월요일 휴관

장 소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 페어인 ‘2025 루프 랩 부산(2025 Loop Lab Busan)’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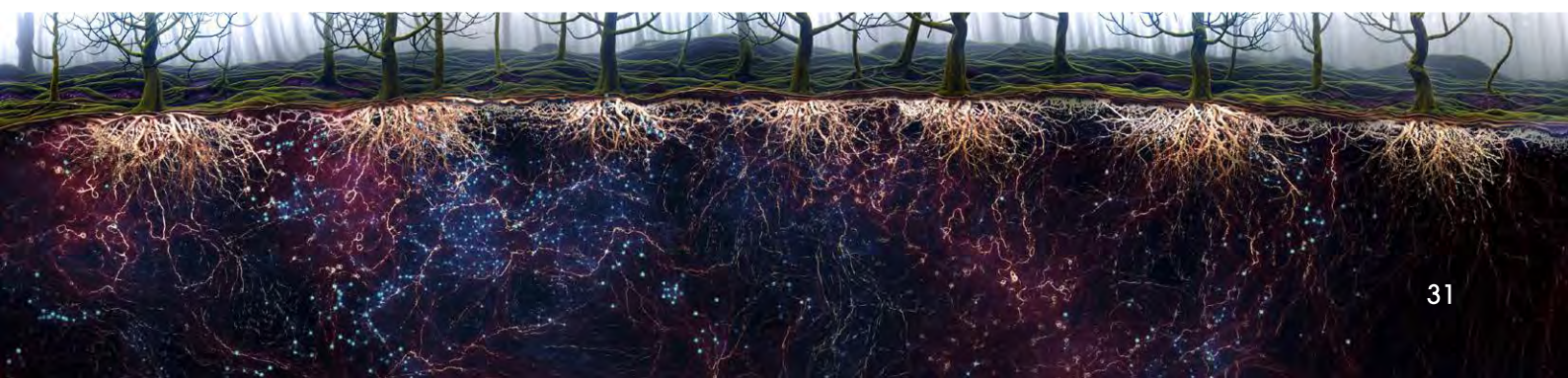
이번 ‘2025 루프 랩 부산’은 부산시립미술관과 에이플렉션(A Fluxtion)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4월부터 6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기존 유럽에서 개최되던 ‘루프 바르셀로나 (Loop Barcelona)’의 성공적인 모델을 부산으로 옮겨온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며 실시간으로 감상 및 거래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의 이번 전시는 지난 2022년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 전시 이후로 부산시립미술관과 갖는 두 번째 협업프로젝트로, ‘타임 큐비즘 Time Cubism’이라는 주제로 오늘날 급변하는 미디어 기술과 예술 융합의 다양한 형식을 보여준다.

이번 ‘타임 큐비즘 Time Cubism’ 전시는 ‘미디어 고고학(Media Archeology)’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며 예술 매체의 새로운 형식적 기술의 양상을 분석한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진화는 우리의 지각 양식 및 인식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만큼 우리 삶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

져왔다. 새로운 매체에서 비롯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성, 그에 따른 공간과 시간의 인식 변화는 예전과 다른 미학적 의미를 생성하는 창작의 토양을 다져놓았고, 그 위에 펼쳐진 영상미술의 지형에도 본질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미술사의 ‘큐비즘’이 19세기 말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3차원 공간에 대한 인간의 인지 지각이 해체, 재구성되면서 생겨났듯이 ‘타임 큐비즘’은 21세기 디지털 기술혁명의 발달로 4차원 시간에 대한 인지 지각이 해체, 재구성됨으로써 시간의 속도와 시간의 재현에 있어 기술적 조작과 가공이 가능해졌다. 이렇듯 새로운 시간성의 표현은 영상작업에 있어서 비선형적, 다층적 특징을 드러내며 다차원적 화면구성으로 낯선 시공간적 체험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참여작가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이자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현대작가인 날리니 말라니(Nalini Malani), 영혼주의 철학을 다루는 태국의 현대미술가 카민 르차이프라스릿(Kamin Lertchaiprasert), 그리고 김기라(Ki-ra KIM), 인공자연(Artificial Nature)의 작품을 통해 낯설고도 확장된 시공간적 체험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동시대 디지털 기반의 영상미술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성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탐색하는 자리로, 21세기 새로운 예술적 사조의 흐름을 알리는 전조의 하나로 의미 있는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인공자연 (지하루, 그라함 웨이크필드), 얽힘 Entanglement, 2023, 5분, 단채널 영상, 이미지 작가 제공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다

2025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

재생과 균형 Regeneration & Balance

일 시 5월 23일(금)-6월 1일(일)**장 소** 영화의전당, 부산시민회관, 어댑터 씨어터,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소향실험극장,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외**입장료** 개·폐막작 1층 4만원, 2층 3만원, 3층 2만원, 초청공연 전석 3만원(※안티고네
1층 4만원, 2층 3만원, 3층 2만원), K-Stage 전석 2만원, 이 외 공연은 무료**문 의**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www.bipaf.org

부산 최대의 공연예술축제 '2025 부산국제연극제'가 5월 23일 그 화려한 축제의 문을 연다.

지난 2004년 첫 발을 내딛은 부산국제연극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며 연극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해오고 있다. 최근 성년을 넘기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부산국제연극제는 우수작 초청뿐 아니라 해외 진출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및 부산 연극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며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는 '재생과 균형(Regeneration & Balance)'이라는 콘셉트 아래 극장 공연과 함께 야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글로벌 확장 지원 프로그램인 'K-Stage'를 비롯하여 어린이를 위한 'BIPAF KIDS PROGRAM', 신진예술가 발



아티스트 토크

굴을 위한 'BIPAF Rookies'를 새롭게 신설, 축제의 울타리를 확장한다. 또한 특정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신체극, 가극극, 인형극, 거리극 등 공연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선보이며 어디에서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지난해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주한 이탈리아문화원과 협업했던 부산국제연극제는 2025년을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정하고 개·폐막작으로 사르디니아 씨어터(Sardegna Theatre)의 <Tragùdia-오이디푸스의 노래>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연출가 다리아 데플로리안의 <채식주의자>를 선보인다. 개막작인 <Tragùdia-오이디푸스의 노래>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걸작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며 인간과 신, 도덕과 정치의 경계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강렬한 무대 언어로 풀어낸 작품이다. 폐막작인 <채식주의자>는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작가 한강의 대표작으로, 소설 속 깊이 있는 서사와 강렬한 이미지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며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상상력이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올해는 개·폐막작 외에도 초청공연으로 언어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연극적 경험을 창조하는 일본 극단 Mum & gypsy의 <체어/일

포스토(Chair/IL POSTO)>와 이스라엘 연극계를 선도하는 베이트 레신 씨어터의 <안티고네>, 2024년 작강연 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 극단 배우창고의 <워 아이니?(War 愛)>,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흥 비주얼 씨어터 컴퍼니인 시티오(SITIO)의 <어센션(Ascension)> 등 네 작품을 소개한다.

연극제 출범 후 국내의 수준 높은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유통 플랫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부산국제연극제는 올해 ‘글로벌 프로그램(Global Program)’의 일환으로 ‘K-Stage’를 신설한다. 글로벌 시대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작품 및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땅세의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극단 맥의 <비나리>, 초록소의 <서페이스>, 극단 코코의 <의자들 ‘rebuild’>, 판소리아지트 놀앤팁스의 <오버더페칭: 문전본풀이>, 숨다의 <영농일지>가 선정되어 경연을 펼친다.

이밖에 어린이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BIPAF KIDS PROGRAM’은 부산진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연극제 사전 행사로, 가정의 달을 맞아 이스라엘 작품 두 편이 백양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린이 대상 비주얼 & 인형극 극단인 트레인 씨어터의 ‘모리스 할아버지의 아픈 날(A Sick Day for Morris McGee)’은 5월 5일부터 7일까지, 카자흐스탄 세계 인형극 카니발에서 최우수 어린이극상(2015), 이스라엘 아시테지 어린이 연극제에서 올해의 융합 예술 연극상 & 인형·소품 디자인상(2014)을 수상한 오르난 브레이어의 ‘테일러 메이드(Tailor made)’는 11일부터 13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BIPAF Rookies’는 신진 공연예술가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서대학교와의 협력으로 윤태식 교수 연출의 신체극 ‘대답되지 않은 질문(Unanswered Question)’을 무대에 올린다. 동서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여한 이번 작품은 국내외 무대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며, 공연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5월 25일과 26일 동서대학교 소향



10분 연극제

실험극장.

참여프로그램으로는 수많은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된, 다채로운 거리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다이나믹스트릿’이 5월 31일과 6월 1일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태국, 영국 등 9개팀이 참여하여 다양한 거리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또, 시민들이 직접 연출하고 무대에 올라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는 <10분 연극제>는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밀락더마켓에서 시민과 예술이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이밖에 국내외 초청작 상연 후 열리는 아티스트 토크에서는 초청팀과 관객이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대화를 나누며 공연예술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부대행사로는 새롭게 신설된 ‘NextGen LAB’을 비롯하여 ‘국제 포럼(Global Forum)’, ‘아티스트 교류(Global Connection)’가 펼쳐진다. ‘NextGen LAB’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자리로, 올해는 일본 극단 MUM&GYPSY을 이끄는 극작가 겸 연출가 다카히로 후지타가 진행하는 연극 워크숍을 통해 연극 창작의 새로운 시각을 탐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한다. ‘국제 포럼’에서는 해외 페스티벌 산업 관계자들이 각 축제의 운영 방식과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며 글로벌 예술 축제의 흐름을 탐색하고, ‘아티스트 교류’에서는 공연예술단체와 해외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초청작품

[개막작] 사르디니아 씨어터 <Tragùdia-오이디푸스의 노래>

5월 23일(금) 오후 7:30, 24일(토) 오후 6:00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왕으로 추앙받았다가 죄인으로 추락한 오이디푸스,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빛을 찾아 어둠 속을 헤메는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고전의 깊이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이 작품은 운명과 맞서는 치열한 순간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일본 극단 Mum & gypsy <체어/일 포스트>

5월 24일(토)-25일(일) 오후 6:00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일본 극단 Mum & gypsy와 이탈리아 7개 극장 및 페스티벌이 협력한 국제 공동 제작 작품으로,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산세폴크로에서 보낸 시간을 바탕으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일본어와 이탈리아어가 공존하는 이중언어 연극으로, 배우들은 극 중에서 두 언어를 오가며 대화하고, 이런 언어적 교차하는 인물들이 현실과 기억 속 사건을 마주하는 과정을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베이트 레신 씨어터 <안티고네>

5월 27일(화)-28일(수) 오후 7:30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안티고네’는 시대와 장소를 넘어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온 작품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안티고네>는 기존의 무대 형식을 벗어나, 마치 리허설룸 같은 공간에서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며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문다. 변형되는 무대, 거울을 활용한 공간 확장, 세밀한 의상과 조명은 서사의 깊이를 더하며, 배우들의 강렬한 에너지가 그 중심을 붙잡는다.

극단 배우창고 <워 아이니?(War 愛)>

5월 28일(수)-29일(목) 오후 7:30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쟁 속에서도 꿈꿨던 작은 행복, 그리고 파괴된 삶.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 연극 <워 아이니?(War 愛)>는 삶을 무너뜨리고, 인간성을 짓밟으며,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전쟁, 그 처절한 순간들을 포착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시티오(SITIO) <어센션>

5월 31일(토) 오후 3:00, 6:00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르코크 연극학교 출신의 국제적인 예술가들이 모여 설립한 시티오(SITIO)는 연극적 언어를 확장하고 신체성을 시적 표현의 원천으로 삼아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집중한다. <어센션>은 인간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는 본능과 위대함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오만함과 허영심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그동안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에서 초청받아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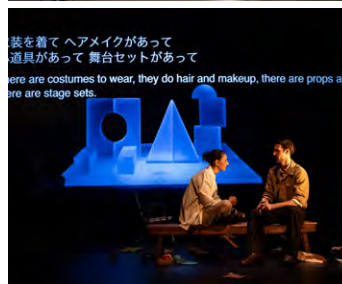
[폐막작] 다니아 데플로리안 <채식주의자>

5월 31일(토)-6월 1일(일) 오후 6:00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세계가 주목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이탈리아 최고의 연출가 다니아 데플로리안과 만나 강렬한 무대로 재탄생했다. 특히 한국 초연으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소설이 지닌 깊이와 강렬한 이미지를 독창적인 연극적 언어로 풀어내면서 빛과 어둠, 욕망과 광기, 그리고 인간 본질을 파고드는 강렬한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Tragùdia-오이디푸스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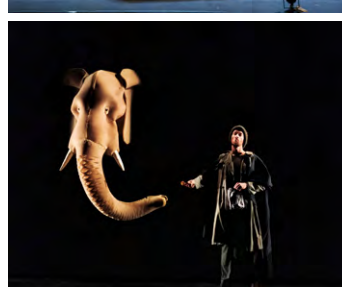
체어/일 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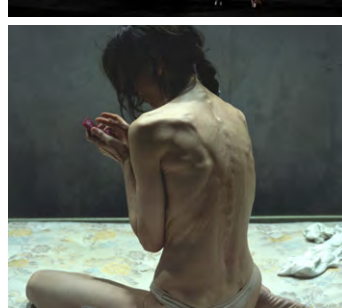
안티고네



워 아이니?(War 愛)



어센션



채식주의자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비나리



서페이스



의자들 'rebuild'



판소리매창: 문전본풀이



숨다



K-stage

하땅세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5월 24일(토)-25일(일) 오후 3:00 | 어댑터씨어터 2관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무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K-가죽극이 펼쳐진다. 익살 넘치는 '눅극(누워서 하는 연극)'으로 펼쳐지는 상상의 세계로, 배우들의 유쾌한 움직임과 구불구불 풀어헤친 골판지가 만들어내는 기발한 장면들, 블랙라이트 속에서 형형색색 빛나는 종이 오브제들이 환상적인 색채의 향연을 펼친다.

극단 맥 <비나리>

5월 25일(일) 오후 3:00, 26일(월) 오후 7:30 |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하늘과 소통을 갈망하는 한국의 무속신앙(샤머니즘)이 연극으로 탄생한 <비나리>는 동해안의 오구굿과 한국의 가면극 동래야류 영감할미 과장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극 속에서 펼쳐지는 망자의 혼을 달래는 행위는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한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초록소 <서페이스>

5월 27일(화)-28일(수) 오후 7:30 | 어댑터씨어터 2관

'초록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간과 장르의 경계를 넘는 접근을 통해 거리예술과 서커스의 특성을 반영한 컨템포러리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서페이스>는 기후변화로 인해 녹아내리는 빙하 표면에 대한 과학자들의 해석을 서커스 형식으로 풀어내어, 기후변화와 위기의 심각성을 보다 쉽게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극단 코코 <의자들 'rebuild'>

5월 28일(수)-29일(목) 오후 7:30 |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신체극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무대 언어를 구축하고 있는 극단 코코의 무대. 외젠 이오네스코의 의자들을 신체극 형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대사 없이 배우들의 움직임과 신체적 표현만으로 극을 이끌어간다. 이 작품은 지난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넥스트스테이지 연극부문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판소리이지트 놀애박스 <오버더매창: 문전본풀이>

5월 30일(금) 오후 7:30, 31일(토) 오후 3:00 | 어댑터씨어터 2관

판소리극 작업을 중심으로, 실험적이면서도 다양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판소리이지트 놀애박스가 판소리 합창으로 들려주는 제주 신화로, 가족과 집을 지키는 가택신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가족 해체의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는다. 특히 전통 판소리에 합창을 결합하여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한다.

숨다 <영농일지>

5월 31일(토)-6월 1일(일) 오후 3:00 |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그동안 주로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창작 활동을 이어오다 2021년부터 농업을 주제로 리서치를 시작하여, 농업과 연극을 결합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숨다의 대표작으로, 사회적 농장을 배경으로 돌봄과 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농업이 단순한 생산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임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공동체의 가능성을 질문한다.

부산의 소리, 브람스로 울리다 II

Sound of Busan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글 김정화 음악평론가

차가운 바람에 벚꽃이 날리던 저녁, ‘브람스 사이클’ 시리즈 두 번째 공연이 지난 4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젊은 지휘자 지중배가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협연자로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브람스 <교향곡 제1번 다단조, Op.68>을 비롯해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Op.77>과 김종완이 작곡한 <완성의 여정, Journey to Becoming>이 세계 초연으로 꾸러졌다.

이날 공연은 부산 출신 작곡가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촉한 김종완의 <완성의 여정>으로 문을 열었다. 반도네온 연주자로도 활동하는 그는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현악 오케스트라 작품에서 ‘여정’을 테마로 현대음악과 감성적 내러티브의 경계를 탐색했다. 다채로운 현악기 음색의 조합에 시시각각 변하는 리듬패턴이 이목을 끌었고, 감각적인 모티브 사용이 인상적이었다. 작곡가는 브람스적 “선율적 전개, 구조적 유기성, 감정적 흐름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곡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적 명료성은 아쉬웠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유기적인 주제나 형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여정’이라는 개념이 설득력을 얻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브람스에 연관성을

강조하려면 좀 더 무게감 있는 고찰이나 긴장감 있는 전개가 필요해 보였다.

고독에서 몰입으로 브람스를 응시하다

김다미는 무대에 다소 불편한 걸음걸이로 힘없이 나왔다. 무표정한 모습에서 세계적 무대 경험을 지닌 연주자라기 보다는, 긴장 속에서 자신의 컨디션을 고요히 끌어올리려는 내면의 싸움이 먼저 읽혔다. 이 분위기는 연주 시작까지 이어졌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겉으로는 전통적인 낭만주의 협주곡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구조적 사유, 인간적 고독, 절제된 감정이 숨겨져 있다. 브람스는 이 곡을 독주자를 위한 쇼케이스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가 서로를 밀고 당기며 긴밀하게 대화하는 ‘교감의 드라마’로 구상했다. 처음 발표당시에 “바이올린 협주곡이 아니라 바이올린이 있는 교향곡”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만큼 무겁고 복합적인 구조를 지닌다. 솔리스트에게는 화려한 기교 이상의 해석과 체력뿐만 아니라 깊은 집중력까지 요구한다. 김다미는 그런 요구들 사이에서 조금 혼란스럽게 출발했다.

1악장의 첫 프레이징은 예상보다 힘이 없었고, 소리의 밀도나 집중도가 부족했다. 그의 명성에 기대를 품고 온 관객에게는 적잖이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지중배는 김다미와 교감하며 음악적 대화를 섬세하게 이끌었고, 그 배려는 무대에 녹아들었다. 김다미는 그 언어에 조금씩 다가가 1악장 중반부터 몰입을 회복해 명확한 프레이징과 섬세한 보잉으로 균형을 되찾았다. 음 사이의 여백에서도 사유의 흔적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2악장에서는 브람스가 요구한 ‘노래하는 바이올린’을 긴 호흡과 섬세함으로 충실히 화답했다. 숨죽이게 만드는 고요함 속의 밀도와 저음에서 고음으로 이어지는 음색의 흐름은 마치 내면의 독백처럼 다가왔다. 말보다 사색을 택하는 브람스의 절제된 감정 표현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3악장에서는 그 감정의 절정을 경쾌함으로 풀어내 안정감 있게 이끌었다. 빠르고 복잡한 리듬 변화와 예민한 전환에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마지막 호흡까지 충분히 살리며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날 김다미의 연주는 불안정한 출발에서 조금씩 몰입을 회복하며, 결국엔 브람스가 의도한 깊이 있는 정서인 '음악적 대화'를 관객과 나누었다. 브람스가 협주곡이라는 형식을 빌려 말하고자 했던 내면의 품격과 고독은 연주자가 사유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운 무대였다.

안정된 리드, 아쉬운 에너지

브람스 <교향곡 1번>은 그 자체가 여정이다. 감정을 무장 해제 시키기보다 끝없이 조율하고 정제하며 기다리게 해 연주자에게 고도의 집중과 구조적 이해를 요구하는 작품이다. 브람스는 이 교향곡을 완성하기까지 20년 넘게 침묵했고, 그 세월은 작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이 곡을 연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서 구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엄격한 구조 속에 감정을 밀어 넣고, 묵직한 형식 안에서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그만큼 이 음악을 진심으로 이해한 연주는 많지 않다. 하지만 BSO의 연주는 인상적인 해석 중 하나로 남았다. 긴장을 견디며, 불완전함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감동으로 전환 시켰다. 그 중심에는 조화와 절제를 간파한 지휘자가 있었다.

이번 공연은 BSO가 더 완벽한 앙상블을 위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할 과제들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다. 1악장에서 바이올린 피치카토는 소극적으로 들렸고, 현악기 투티에서는 관악기 주선율이 묻히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는 이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점차 음악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휘자의 음악적 제스처와 함께 앙상블은 조금씩 균형을 회복했다. 2악장에서는 바이올린의 피아니시모 트레몰로가 민첩성을 잃기도 했다. 악

장 후반의 바이올린 솔로는 부드럽게 녹아들었지만,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음악의 중심을 형성하는 선명한 소리의 결이 채워지지 않아 아쉬웠다. 3악장은 정교한 분위기 전환이 인상적이었으나, 현악기의 다이내믹은 목관 솔로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와 별개로 너무 작게 들려 존재감이 희미했다. 4악장에서도 이와 같은 아쉬움이 반복됐다. 물론 금관의 단단한 하모니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뻗어나가며 장면을 바꾸었고, 첼로 시퀀스의 든든한 지지가 전체 흐름을 깊고 단단하게 마무리 짓는 힘으로 작용했다. 다만, 유명한 코랄형 악절 주제에서 오케스트라가 프레이징의 마지막 음까지 귀 기울이며 연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빠르게 행하는 제1·2바이올린의 악구에서 음이 하나씩 어긋나는 부분을 위해 두 파트를 무대 한쪽에 모으는 대신 무대 양쪽으로 펼쳐 배치했다더라면, 소리의 주고받음이 효과적 음향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는 차이코프스키 <비창 교향곡> 마지막 악장에서 드러나는 음향적 대비와 유사한 맥락이다.

브람스 교향곡은 '음악적 정직함'을 요구한다. 치밀한 구조 속에서 고요하게 제어된 감정을 품고 그 안에서 자아를 찾는 일이다. 지중배와 BSO는 이러한 질서를 받아들여 거대한 구조에 성실히 접근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단지 잘 연주된 음악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엇을 함께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브람스가 평생 음악에 담고자 했던 메시지일 것이다.

서사적 군더더기, 주제의 약화와 모호함

부산시립극단 스타 프로젝트 ‘오롯이 빛나는’ & ‘초월자’

글 김문홍 극작가, 연극평론가

부산시립극단의 <스타 프로젝트>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중대극장에서 공연하던 종래의 관습에서 벗어나 소극장에서 관객을 만나 연극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중견이나 신인 예술가에게 작품을 의뢰해 극작, 연출, 배우를 재조명한다는 의미이다. 지지난해의 원로 극작가, 지난해의 중견 연출가 스타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는 직접 작품을 쓰고 연출하는 신인 연출가를 재조명했다.

<오롯이 빛나는>(2025. 3. 28.~29, 차승호 작, 연출, 110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과 김민우의 <초월자>(2025. 4. 4.~5, 김민우 작, 연출, 125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는 신작 무대로서, 두 작품 모두 일반 관객에게는 서사적 재미를 주었지만, 두 연극인에 대한 동료 연극인의 기대에는 조금 못미쳐 아쉬움을 주지 않았나 싶다. 즉, 신인으로서의 파격적인 주제의식과 형식적 독창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희곡으로서의 참신함과 표현 형식으로서의 독창성은 신인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데, 그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기대가 부족했다는 말이다. 연극 예술가적 신인으로서의 파격성, 참신성, 도전적인 자기만의 고유한 연극 문법이 보이



오롯이 빛나는

지 않았다는 점이다.

차승호가 쓰고 연출한 신작 무대인 <오롯이 빛나는>이란 작품은 희곡으로서의 주제의식은 동시대적 요구이고 보편성이 있지만, 무대 위에 표현된 형식으로서의 공연은 산만하고 지리멸렬한 느낌을 주었다. 문학으로서의 희곡과 그것을 재현하는 공연은 엄연히 다르다. 연극은 제한된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없고 또한 보여줄 필요도 없다. 압축과 절제는 희곡과 공연의 미덕이다. 또한 모든 장면과 그것을 이루는 에피소드는 주제와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즉, 주제와 관련 없는 것은 압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표현의 절제를 통해서 관객도 나름대로의 상상을 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작품은 이름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는 아들 우동기(채민수 분)와 장터에서 각설이 행상으로 엿을 파는 어머니 디올이(이현주 분)의 끈끈한 모자간의 사랑을 통해, 현실의 빈곤과 아픔을 잊고 미래의 꿈을 엮어가는 서사적 열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거기에 마씨(이혁우 분), 썰빔이(조정우 분) 등이 어머니 행상 동료로 합세해 관객의 웃음을 유



초월자

발하고 있다. 전반부는 우동기의 야구 시합과 연습, 그리고 어머니의 행상 행각을 통해 쏙쏙한 재미를 보여주고, 후반부는 어머니의 발병으로 이의 회복을 위해 아들 우동기가 어머니에게 쏟는 사랑을 통해 녹진한 감동의 여로를 펼쳐는 서사 열개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모자간의 보편적 사랑과 희생으로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제의식에 불요불급한 장면과 에피소드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압축과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웃음을 유발하는 재미적 요소가 너무 과하게 끼어들어, 관객이 진득하게 모자간의 사랑에 동화되는 심리적 여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웃음과 재미도 보편적 사랑에 대한 강조와 극적 환상이 되어 주제의식의 반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따로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제의식에 기여하지 못하는 요소에 대한 압축과 절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어머니 역의 이현주, 마씨 역 외에 여러 역을 능청스럽게 소화하는 이혁우, 그리고 극적 재미에 방점을 찍는 조정우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혼신으로 소화해 내는 아들 역의 채민수의 연기는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우의 <초월자>는 일종의 첩보 스릴러 형식으로 완벽한 서사적 열개를 보여주고 있다. 한 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현란하고 빈틈이 없는 무대 전환의 운용술, 그리고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연기적 상상력과 정제된 대사와 전달력이 뛰어난 화술과 시공간의 변화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조명 등 무대 표현의 완숙미를 보여준다. 즉, 시청각적 무대 표현은 서사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리드미컬한 서사 전개를 위한 무대 전환과 운용술을 위한 빈틈없는 연습의 숙련도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다 보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에 대한 주제의식이 모호한 점이 못내 아쉽다. 후반부 끝부분에서 단장(주형준 분)과 동욱(이태성 분) 간에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반전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해 관객에게 떨어트린 여운을 남겨 다소 아쉬웠다. 좀더 쉽고 명확하게 관객에게 주제의식이 전달되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 이 작품 역시 관객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 더러 보이는데, 그 웃음이 주제의식과 동떨어져 있어 서사의 압축과 절제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단장 역의 주형준은 정확한 화술과 군더더기 없는 연기를 보여주었고, 동욱 역의 이태성은 서사적 통일성을 보여주는 진지함으로 일관했고, 황창기와 서보기, 그리고 김은희는 재미성으로서의 맛깔난 연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재미성 역시 주제와 관련을 보여주고, 그 지속성의 절제를 보여주었을 때 더욱 빛이 나게 마련이다. 재미있는 웃음도 자꾸 보여주다 보면 식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초월자>는 완벽한 극작술과 무대 표현의 완벽성을 보여주는 김민우라는 극작가와 연출가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부산시립극단의 '스타 프로젝트'는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것 같다. 이러한 콘셉트를 통해 부산연극의 유망주를 발견해, 부산연극의 지평을 보다 더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필자만의 기대와 소망은 아닐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일 시 | 3월 5일(수)-6월 1일(일) 평일 오전 10:30(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월-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얼씨구 삼총사와 함께 하는 좌충우돌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우리의 전통악기를 캐릭터화한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음악과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무대로, 음악대륙 가이아의 신명나는 국악연주와 함께 펼쳐진다.

이번 무대를 제작한 콘텐츠 플랫폼 가이아는 예전의 대륙이 하나였던 세상 모든 문화는 하나이고 그 속의 다양한 문화들을 담아내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국악의 새로운 면모와 다양성을 대중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 극본/김지은
- 음악감독/손한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영옥&김다솔 듀오 콘서트

일 시 | 5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10대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이자 무대에 함께 오를 때마다 서로가 원하는 가장 솔직한 음악을 들려준다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옥과 피아니스트 김다

솔의 듀오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옥은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 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솔리스트로 음악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저명한 국제 무대 및 콩쿠르에서 성공을 거두며 국내외 무대에서 총횡무진 활동해오고 있다.

2012년 첫 듀오 리사이틀을 가진 후 올해로 13년째 호흡을 맞춘 김영옥과 김다솔은 이번 무대에서 시대와 사조를 넘나드는 연주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일 시 | 5월 2일 금요일 오전 10:30(단체관람), 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4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4천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합창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피노키오’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무대로, 원작과 달리 파란 요정을 파란 마녀로 설정, 거짓말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로 인한 갈등과 화해를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특히 ‘피노키오와 파란마녀’는 부산시립합창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2022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자체 제작 뮤지컬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 부산시립합창단의 수준 높은 합창이 더해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고품격 어린이 뮤지컬이다.

소프라노 김가은 귀국 독창회

일 시 | 5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아트매니지먼트 이랑 010-9338-8485 (문자 문의)



▼▼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독, 드레스덴 국립음대와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오페라과를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졸업한 소프라노 김가

은 귀국 독창회.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수학 중 학교 대표로 선정되어 헬무트 도이치와 함께 스위스 Cully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연주했으며, 독일 브레멘시립오페라극장의 오페라 ‘돈 조반니’로 독일 오페라잡지 ‘opernwelt’의 평론가 선정 2020년 신인음악가로 선정되었다.

김가은은 유럽과 한국에서 다수 오페라 주역과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전문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김란
- 클라리넷/유지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5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독일 전통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를 잇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무대. 시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진정성 있는 연주로 사랑받고 있는 테츨라프는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의 상주 음악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했으며, 2019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올해의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한국 관객과도 친숙하다.

프로그램

- 수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
-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 시마노프스키/‘신화’ 중 ‘드리아데스와 판’
-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 피아노/키벨리 되르겐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 아이 음악회

일 시 | 5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9일 금요일 오전 10:30(단체관람)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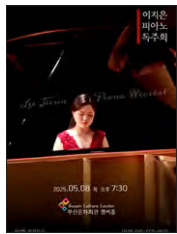
▼▼
어린이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우리 아이 음악회’.

‘우리 아이 음악회’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홍석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클래식 입문을 위한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를 들려준다.

연주와 더불어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혁우, 오희경의 내레이션과 샌드여행 대표 노선이의 샌드아트 공연으로 관람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지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5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지은 010-7771-1830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피아니스트 이지은 독주회.

이지은은 부산음악교육연구회 콩쿠르 금상, 한문화예술전국음악콩쿠르 대학부 금상, 호르비츠 추모 음악 콩쿠르 금상을 비롯하여 이태리 Euterpe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1위,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1위,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콩쿠르 금상 등 국내외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했으며 부산음악대축제 신인음악회,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현재는 아티스테 앙상블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몸포우/풍경화(Paisajes)
 쇼팽/마주르카 작품 24
 리스트/피아노소나타 나단조 S.178

부산음악포럼 창립 20주년 기념 제20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5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음악포럼 010-3885-6600, 010-3570-3717



전문음악인과 생활음악인으로 구성된 부산음악포럼 정기연주회.

지난 2005년 7월 창립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 계절음악회 등 매년 5~6차례 음악회를 가져온 부산음악포럼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전남 등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 소프라노/정소연, 김채원, 김정아, 강민채, 신영숙, 최미영, 박순덕, 한재희
- 메조소프라노/이경희, 박선화
- 테너/김이수, 양수배, 박안수
- 바리톤/한성권, 배용, 정량부, 황우상
- 피아노/조아라

김창옥 토크콘서트 시즌5

일 시 | 5월 11일 일요일 오후 1:00,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
 문 의 | ㈜하늘이엔티 1688-6675



소통의 달인 김창옥과 함께하는 힐링 토크쇼 '김창옥 토크콘서트' 시즌 다섯 번째 무대.

'스타 강사', '소통의 달인', '강사들의 롤모델', '힐링 퍼포먼스의 일인자' 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 김창옥은 성악 전공 후 '대한민국 1호 보이스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전문 강사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tvN의 '어쩌다 어른'에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 시즌에 이어 더욱 새롭게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최고의 소통전문 강사로 20여 년을 펼쳐온 그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관한 다섯 번째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5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 5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지역의 청년음악가들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함께하는 '2025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6명의 연주자들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멋진 앙상블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베토펴/피아노협주곡 제3번 1악장
 프로코피예프/바이올린협주곡 제2번 3악장
 바흐/플루트협주곡 라단조 3악장
 르브랭/오보에협주곡 제1번 1악장
 크루셀/클라리넷협주곡 제1번 1악장
 생상/바이올린협주곡 제3번 3악장
 • 피아노/오찬민 • 바이올린/서은우, 이해창
 • 플루트/권예은 • 오보에/윤지한
 • 클라리넷/신호연

2025 부산음악대축제

일 시 | 5월 13일(화)-16일(금) 오후 7:30
대·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부산음악인들의 열정으로 마련되는 2025 부산음악대축제.

특히 올해부터는 봄과 가을로 나누어 진행되던 축제를 하나로 통합,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무대로 감동을 선사한다.



13일(화) 중극장

I 신인음악회

지역의 신진 음악인들이 마련하는 열정의 무대 '신인음악회'.

- 예술총감독/김소형
- 해설/김윤선

- 피아노/길종한, 김나영, 박주연, 신주희, 전규진
- 바이올린/이유정
- 플루트/강재정, 양진경 • 클라리넷/김나형
- 성악/김주연, 박서진, 전어진

14일(수) 중극장 II 실내악의 밤

부산현악4중주, 나눔플루트 앙상블, BS오퍼스 앙상블, 뮤직 인 색소폰 앙상블, 효산가야금 앙상블, 로우 앙상블 유튜브(EuTuB), 포르투나 앙상블, TDC 앙상블, BmW(Butterfly move World), 부산오페라 앙상블 등 다양한 장르의 10개 앙상블팀이 출연, 실내악의 매력을 선사한다.

- 예술총감독/김소형 • 해설/김윤선



15일(목) 대극장

III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부산지역 5개 대학과 부산음악협회 소속 신인연주팀 등 7개팀, 70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참여하는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

- 예술총감독/김소형
- 음악감독, 해설/김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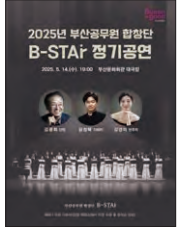
16일(금) 대극장 IV 오페라 갈라콘서트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과 비제의 '카르멘'을 서곡 및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 지휘/김현국 • 연출/김성경
- 연주/부산청년오케스트라

2025년 부산공무원합창단 B-STAR 정기공연

일 시 | 5월 14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당일 티켓 수령 후 선착순 입장)
문 의 | 부산공무원합창단 888-5234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산공무원합창단 비스타(B-STAR)의 무대.

지난 2011년 6월 13일 창단한 부산공무원합창단

은 현재 김광희 단장을 비롯하여 6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산합창제, 시민행복콘서트, 로비콘서트 등 30여 회 문화공연을 통해 회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애칭인 'B-STAR'에는 'Bass, Soprano, Tener, Alto'의 4부 혼성합창단으로 Busan을 빛내는 Star'가 되자는 소망이 담겨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깊이있는 해석과 섬세한 앙상블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는 에르테나 앙상블이 특별출연, 가곡 및 영화OST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하피스트 정주희 귀국 독주회

일 시 | 5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정주희 010-4416-8886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도불, 파리 국립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및 콘서트연주자과정을 거쳐 Ecole Normale de Musique 최고연주자 과정 최우수 만장일치 졸업, 아티스트 디플로마 우수 졸업한 하피스트 정주희 귀국 독주회.

정주희는 한음 음악 콩쿠르에서 1위하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부산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광주시립교향악단,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 베토벤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다수 오케스트라의 객원을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Rhapsodie(Marcel Grandjany), La Pothouih(Jacques Duphy), Introduction, Cadenza and Rondo(Elias Parish Alvars), mpromptu op.86(Fauré) 등

서해원 피아노 독주회

PASSION & SENTIMENT

일 시 | 5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서해원 010-2545-2513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발하고도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해원 독주회.

‘정열과 서정(PASSION & SENTIMENT)’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슈만의 깊고 강렬한 음악을 통해 격렬한 감정과 섬세한 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슈만/환상소곡집 작품 23 등

양옥진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5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학생1만원(티켓파크 예매)
문 의 | 양옥진 070-8018-8303



뉴욕콘서트리뷰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와 멜로디가 나의 귀와 가슴을 어루만졌다'라는 호평을 받은 첼리스트 양옥진 리사이틀.

양옥진은 미국 모리스주립대학교 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 수석첼리스트를 역임한 후 현재는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매년 독주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해온 양옥진은 이번 무대에서 포레의 소품 '꿈을 꾸 후에'로 시작하여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제2번', 그리고 음악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10년간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박민선과 함께 첼로와 피아노의 최고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의사회합창단 메디코러스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의사회합창단 010-9356-1834



부산시의사회 소속 남녀 의사로 구성된 부산시의사회합창단 메디코러스의 정기연주회.

메디코러스는 지난 2011년 창단 후 의사의 각종 행사와 더불어 부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왔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아름다운 5월을 맞아 한 국가곡과 함께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넘버, 가요 등을 들려준다.

- 단장/김광우
- 지휘/양재원
- 피아노/김현경
- 사회/정상문
- 특별출연/박진, 박하린(가야금)

오수민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5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YO KOREA 010-6547-3079



독일 쾰른국립음대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오수민 독주회.

오수민은 파리국제음악콩쿠르 3위, G. Raciti 국제음악콩쿠르 1위, Terra degli imperiali 국제음악콩쿠르 1위, Roma 국제음악콩쿠르 3위, IMKA 국제음악콩쿠르 1위, Golden Classical Music Awards 국제콩쿠르 1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현재는 부산예중, 부산예고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쇼팽/5개의 마주르카 작품 7
하이든/피아노소나타 제33번 단단조
바흐/카프리치오 내림나장조 BWV 992 등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빨강머리 앤**

일 시 | 5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02-766-7623



클래식큐레이터의 해설과 영화, 그리고 음악이 함께하는 무대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의 세계명작극장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빨강머리 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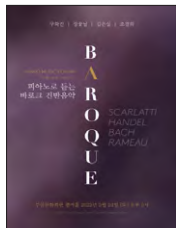
원작 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무대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추억 속 애니메이션 속으로 함께 떠난다.

이번 무대의 해설을 맡은 조숙현은 국내 최초의 클래식큐레이터로, 그동안 다양한 클래식 프로그램의 진행은 물론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을 통해 복합예술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이며 탁월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클래식큐레이터/조숙현
- 연출/임용순
- 음악감독/남근형
- 지휘/김다솔
- 연주/일미터틀래식앙상블

PIANO MUSIC FORUM 기획연주 시리즈 I
피아노로 듣는 바로크 건반 음악

일 시 | 5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PMF 010-3198-1124



2002년 창단한 '에원회' 산하 음악 연구단체인 'PIANO MUSIC FORUM'의 첫 번째 기획 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 시대, 유럽 여러나라의 다양한 건반음악 스타일과 작품들을 소개하고, 피아노와는 완전히 다른 음색과 특징을 가진 하프시코드의 악곡을 현대적 피아니즘으로 재해석한다.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4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서로 다르게, 또 연결된 느낌으로 청중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탈리아의 밝은 햇살을 닮은 스카라티의 소나타, 섬세하고 감각적인 프랑스 바로크의 거장 라모의 클라브생 모음곡, 그리고 영국과 독일 바로크의 양대 산맥인 헨델과 바흐의 모음곡들을 들려준다.

- 연주/구화진, 정꽃님, 김은실, 조경희

부산시민회관

2025 시민뜨락축제

일 시 | 4월 5일(토)~5월 31일(토)
 부산시민회관 야외무대, 도모현,
 롯데몰 동부산점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25 시민뜨락축제'.

올해부터는 기존의 부산 시민회관 야외광장뿐 아니라 도모현(구 부산시 관사), 롯데몰 동부산점 등 도심 속 생활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5월 2일(금) 오후 12:10 부산시민회관 야외무대
 국악그룹 길, 마음버스 포크밴드

5월 9일(금) 오후 12:10 부산시민회관 야외무대
 주드 밴드, 아이씨 밴드

5월 31일(토) 오후 4:00 롯데몰 동부산점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2025 부산유니온발레단 정기공연
창작발레 **보은의 꽃**

일 시 | 5월 9일 금요일 오후 2:00(단체관람),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6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부산유니온발레단 010-8544-1442,
 010-4572-9991



부산유니온발레단의 2025년 창작발레 '보은의 꽃'.

1979년 창단된 김정순발레단을 모태로 1995년 지금의 발레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활동을 이어온 부산유니온발레단은 초대단장이었던 김정순 예술감독에 이어 상임안무가였던 김민교가 제2대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젊은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한 컨템포러리 발레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초연된 창작발레 '보은의 꽃'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효(孝)의 가치를 예술적 언어로 재조명한 무대이다.

- 안무/김정순, 김민교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일 시 | 5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들과 클래식의 거리를 좁혀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클래식 공연 시리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두 번째 무대.

특히 어린이들의 눈 높이에 맞춘 해설로 공연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스크린을 활용한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앙상블 연주가 어우러진다.

올해 두 번째 무대인 '클래식 댄스! 댄스!'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 선율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음악 속 다양한 춤곡을 우아한 궁전 춤곡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 민속 춤곡을 감상할 수 있다.

- 해설/박소연
- 연주/엘 콰르텟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대소동

일 시 | 5월 24일~2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6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45% 할인)
 문 의 | ㈜더하방이엔티 1800-6567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를 뮤지컬로 제작한 무대. '꼬마버스 타요'는 개성만점의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며 사이좋게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기를 배경으로 이제 막 시내버스로서의 자질을 얻어 운행을 시작한 새내기 타요와 그의 친구들의 성장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번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 대소동'은 빨리 어른이 되어 밤늦게까지 놀고싶은 타요가 마녀에 의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를 갖게 되면서 어른이 되는 소원을 빌지만, 생각만큼 어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보여준다.

음악

2025 스타인웨이 위너콘서트 인 코리아

제이든 이직 드쥬르코 리사이틀

일 시 | 5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4만원, S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2024년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에 이어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제이든 이직 드쥬르코의 무대로 마련되는 2025 스타인웨이 위너콘서트 인 코리아.

캐나다 출신의 제이든 이직 드쥬르코는 세련된 기술적 기량과 예술적 성숙함으로 청중과 평론가, 작곡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제4번 라장조 BWV. 828

메트너/소나타 바단조 작품 53 제2번

스크랴빈/환상곡 나단조 작품 28

라흐마니노프/10개의 전주곡 작품 23

BIFF 30주년 기념 2025 두레아움 토요야외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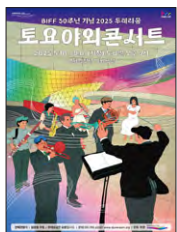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음악 콘서트

일 시 | 5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영화의전당 두레아움 토요야외콘서트 2025년 무대.

5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한달에 한번 열리는 두레아움 토요야외콘서트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을 맞아 부산지역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두레아움 윈드 오케스트라가 영화 OST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5월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음악 콘서트'로, 두레아움 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 부산RCY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 수정초등학교, 내리초등학교가 특별출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 해설/정두환

존 다버자 재즈 콘서트

일 시 | 5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

경계를 넘어서는 재즈의 향연 '존 다버자 재즈 콘서트'.

트럼펫 연주자이자 EVI 연주자, 작곡가, 프로듀서로 동시대 가장 혁신적이고 국제적으로 찬사받는

존 다버자는 에미상 후보, 라틴 그라미 후보, 글로벌 음악 어워드 수상자로 장르를 초월하는 예술성과 대담한 음악적 비전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존 다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중국을 아우르는 세계 각국의 뮤지션과 퀸텟을 구성하여 재즈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모두가 하나되는 음악적 여정을 그리며 즉흥성, 창의성이 가득한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김대규 • 드럼/이제민
• 기타/Jacky Chen • 베이스/박준민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5월 13일(화), 20일(화), 27일(화)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

우수한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여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2025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13일(제65회) 트레프 앙상블 'Blow & Con

certo del salone'

부산, 경남지역의 청년음악인들로 구성된 트레프 앙상블과 클라리네티스트 강철주, 플루티스트 김동호의 고품격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에 대한 배경 및 해설을 통해 클래식 음악이 생소한 관객들도 쉽고 재미있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20일(제66회) 피아니스트 금찬이의 책 읽어주는 음악회

피아니스트 금찬이의 연주로 들려주는 책 읽어주는 음악회.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가족, 한 글자의 몽클함

일 시 | 5월 4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기획한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5월 무대.

새봄을 맞아 '어연히(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 첼리스트 이명로와 '첼리스트의 서재' 대표 피아니스트 박민희, '어연히' 부대표 플루티스트 신혜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 단원 이석민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브리 OST와 클래식 명곡으로 가족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거인의 정원'을 연주와 더불어 그림, 구연가의 이야기로 함께 꾸미는 이번 무대는 라벨의 '머미 거위' 모음곡을 비롯하여 다양한 작품을 피아노 솔로와 듀오, 앙상블로 들려주며 관객들을 재미와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27일(제67회) 르벨 클라리넷 콰르텟 '풍경이 있는 음악회'

사진과 음악이라는 두 가지 예술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사진은 순간의 감정을 담아내고 음악은 그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기에 두 예술이 만나 서로의 매력을 빛내는 음악회를 통해 관객들에게 힐링타임을 선물한다.

프랑스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르벨 클라리넷 콰르텟은 한국과 일본의 클라리네티스트로 구성된 클라리넷 사중주단으로, 2024년 7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한·일 양국을 오가며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 영화의전당 마티네 5월 심현정의 11시 영화음악콘서트 가족의 이름으로

일 시 | 5월 14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21세기 대한민국 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음악콘서트 '2025 영화의전당 마티네'.

올해는 영화 '올드보이'(2004년), '아저씨'(2010년)로 대한민국 영화대상 음악상을 수상한 영화음악가 심현정이 호스트로 참여,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관객과 만난다.

5월에는 영화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덕구', '스텔라', '사과' 등 4편의 영화를 통해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의미를 돌아본다.

- 호스트/심현정
- 연주/부산필름뮤직오케스트라

제99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아드레날린 콘서트 25

일 시 | 5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정통 클래식 의 웅장함과 실력과 합창단의 콜라보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아드레날린 콘서트 25'.

상임지휘자 박부국이 지휘하는 더부산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부산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된 중형급 오케스트라로, 정통 클래식 외에도 '재미있는 클래식'을 모토로 왈츠, 뮤지컬, 행진곡, 영화음악 등 대중적인 곡들을 지속적으로 연주해오고 있다.

특히 로즈와이어(지휘 문동환), 에체르 와이어(지휘 김민준)가 연합무대로 풍성한 합창음악을 선사하며, 피아니스트 김진희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5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7월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 '금정수요음악회' 5월 무대.



14일(제888회) 솔리스트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Die Solisten Ensemble' 음악감독 정준수를 필두로 서울뿐 아니라 부산, 울산, 창원, 대구 등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이 모여 결성된 솔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 바이올린/정준수(음악감독), 전후국(악장), 손은혜, 이현우, 권순지, 우소라, 정아람, 안현정

• 비올라/박주연, 손주연, 윤슬샘

• 첼로/김기량 • 콘트라베이스/강지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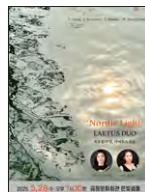
21일(제889회) 지음과 함께하는 4교시 음악 수업!



음악을 연구하고 그 결실을 음악 작품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자 모인 '음악연구 지음(知音)'의 무대.

1교시 바로크음악, 2교시 고전음악, 3교시 낭만음악, 4교시 앙상블 등 음악수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해당 노래의 시대에 대한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다채로운 곡을 즐길 수 있다.

- 소프라노/박성희 • 테너/조운환
- 바리톤/지광운 • 피아노/이가은



28일(제890회) 북유럽의 빛, 라에투스 듀오
항상 도전적인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연주로 다가가는 라에투스 듀오(LAETUS DUO)의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피아니스트 김원민으로 구성된 라에투스 듀오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함께 연주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노르딕 빛(Nordic Light)'이라는 주제로 북유럽 작곡가들의 각국의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골든심포니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골든심포니오케스트라 010-4037-4741



클래식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골든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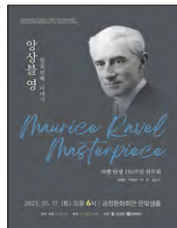
이번 무대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으로 문을 열고, 브루흐의 '로망스'와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5번'으로 이어지는 낭만적인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지휘는 골든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권나는 이 맡아, 깊이 있는 해석과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비올리스트 손성준의 따뜻한 협연과 함께 감성을 자극하는 선율과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앙상블이 어우러져 봄날의 오후를 더욱 풍성하게 물들인다.

- 지휘/권나는 • 비올라/손성준

앙상블 영 일곱 번째 이야기 라벨 탄생 150주년 연주회

일 시 | 5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앙상블 영 010-8613-4490



부산, 경남권의 피아노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영의 무대.

한자 '빛날 영(煥)'에서 이름을 가져온 앙상블 영은 연주를 통해 반짝이는

순간들을 관객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2년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협주곡, 소나타, 환상곡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들려주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초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벨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의 대표 곡들로 꾸며진다. 라벨은 관현악법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특히 그의 피아노곡들은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들도 연주하기 어려운 고난도 기교와 깊은 음악성을 요구한다.

- 연주/윤혜민, 박하은, 하연, 김민진

부산패밀리빅밴드 정기공연

일 시 | 5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부산패밀리빅밴드 010-2576-4801



다양한 장르의 빅밴드 음악을 청중과 함께 공유해온 부산패밀리빅밴드

정기공연.

2019년 창단한 부산 패밀리 빅밴드는 현재 박봉환 단장을 중심으로 재즈와 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 색소폰/천웅대, 공영국, 박봉환, 윤길중, 우주호, 조준준
- 트럼펫/권오원, 조호준
- 트럼본/장승희, 김진수
- 기타/김해일
- 베이스/박인호
- 피아노/이태경
- 신디사이저/양성환
- 드럼/김재룡
- 보컬/김남주, 이철휘, 박희섭

울속도문화회관 씨어터 링크 공연

이상한 나라의 동물들과 신밧드의 모험

일 시 | 5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1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14



친화적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울속도문화회관이 자연과 음악을 주제로 마련한 특별한 무대.

지휘자 손명균이 지휘하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금찬이, 샌드아티스트 노선이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물들의 특징과 움직임을 다양한 악기와 음악적 요소로 재현한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를 비롯하여 창작 교향시 '사하'를 들려준다.

특히 창작 교향시 '사하' 중 '울속도(Eulsukdo Island)'는 작은 갈대 섬인 '울속도'에 대한 추억과 그 곳의 신비로운 새벽안개, 갈대밭 사이로 잔잔히 흐르는 물결, 저녁 무렵 쓸쓸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황혼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신승민 플루트 독주회

Flutell Series XI Dream Travels

일 시 | 5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신승민 010-4911-3259



끊임없는 열정과 빛나는 실험정신의 플루티스트 신승민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과정을 목관악기 최초로 1년 조기졸업하고 동대학

원 예술전문사 과정을 거쳐 독일 함부르크 국립 음대 석사과정, 영남대학교 음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전문 연주자로서의 기반을 탄탄히 한 신승민은 현재 플루트 콰르텟 숨, 아우라 목관오중주, 부산플루트콰르텟 리더, 노블 목관오중주 멤버로 활동하며, 매년 참신한 기획으로 플루트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거리 쇼거, 블라즈 푸치하, 라비상가의 부산초연곡을 비롯하여 김상진, 고베르, 마이클 무어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연우 • 기타/김진택

울속도문화회관 제23회 라이징 뮤지션 콘서트

문화예술 도시 부산의 올림 전람회의 그림

일 시 | 5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부산의 유일한 호른 앙상블팀인 '더 부산 혼 사운드'의 무대로 펼쳐지는 울속도문화회관 라이징 뮤지션 콘서트.

2016년 창단한 '더 부산 혼 사운드'는 호른이라는 악기를 대중들에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 클래식에서부터 영화 음악, 춤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들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무소륵스키가 피아노곡으로 작곡한 동명의 모음곡을 호른 협주곡으로 편곡한 '전람회의 그림'을 비롯하여 일반 관객들이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곡을 호른 협주곡, 이중주 등 다채로운 편성으로 들려준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커피 칸타타

일 시 | 5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클래식 전문 연주단체 베니앤이 들려주는 바흐의 '커피 칸타타'.

'커피 칸타타'는 커피에 중독된 딸과 커피를 끊게 하려는 아버지의 설전이라

는 재치 있고 흥미로운 주제의 작품으로, 칸타타가 작곡되었던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커피는 많은 이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로 다가온다.

'커피 칸타타' 전곡에 앞서 1부에서는 'G선상의 아리아'를 포함한 바흐의 다양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 소프라노/한송이 • 테너/박성근
- 바리톤/김우진 • 피아노/이윤재
- 클라리넷/최윤석

지브리와 사랑에 빠지다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2025

일 시 | 5월 24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5세 이상 관람, 어린이·청소년 20% 할인)
문 의 | 스테이지 M 0507-1338-4810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스튜디오 지브리 OST를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대중들에게 친숙하고도 감성적인 지브리 음악을 스테이지M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와 친절한 해설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영화 속 멜로디가 울려 퍼질 때마다 감동과 추억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프로그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기쿠지로의 여름, 원령공주, 벼랑 위의 포뇨, 천공의 성 라퓨타, 마녀배달부 키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 바이올린/권수진 • 첼로/이희수
- 클라리넷/이주은 • 피아노/박현우
- 퍼쿠션, 해설/이상준

해운대문화회관 On Stage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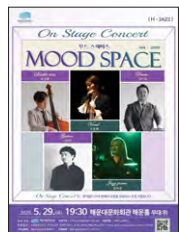
Mood Space

일 시 |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초·중·고생 4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연주자와 관객이 공연장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무대, 해운대문화회관 On Stage Concert.

5월에는 리더 김비오를 주축으로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행하던 Swing Jazz부터 현재의 POP과 K-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하는 밴드 'Mood Space'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Acoustic Sound를 기반으로 'Mood Space'만의 편곡으로 완성한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준다.

- 더블베이스/유경훈
- 보컬/구윤화 • 드럼/김비오
- 기타/이원주 • 재즈 피아노/김하영
- 사회/김성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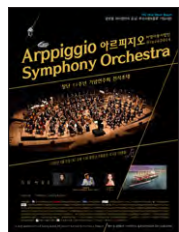
아르피지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 11주년 기념연주회

일 시 | 5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아르피지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528-0819



2014년 창단 후 지금까지 꾸준한 봉사연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예술 보급에 힘써온 아르피지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 11주년 기념무대.

아르피지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공익적 봉사단체로,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자선 송년음악회, 사랑나눔음악회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인 하정호의 지휘로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전 악장을 들려준다. '교향곡 제8번'은 드보르작의 고향인 보헤미안의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으로, 그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밝고 활기차다.

- 지휘/하정호 • 대표 단장/박고성
- 소프라노/변향숙 • 휘파람 연주자/황보서

개그맨 전유성의 엉뚱하고
창의적인 음악 이야기

일 시 |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오페라연합회협동조합
0507-1330-3001

새롭게 리뉴얼된 부산가톨릭센터 소극장 '공간 101.1' 상설공연으로 마련되는 '로사앤 아미치 (Rosa & Amici)'.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윤장미가 기획, 진행하는 예술가들의 음악 토크 콘서트 시리즈로, 매월 수준 높은 음악과 대화를 통해 관객과의 새로운 예술적 소통을 시도한다.

5월에는 개그맨 전유성과 함께 러시아 옴스크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성된 쓰리 소프라노 윤장미, 전영미, 김경은이 출연,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과 이야기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새롭게 리뉴얼된 부산가톨릭센터 소극장 '공간 101.1' 상설공연으로 마련되는 '로사앤 아미치 (Rosa & Amici)'.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윤장미가 기획, 진행하는 예술가들의 음악 토크 콘서트 시리즈로, 매월 수준 높은 음악과 대화를 통해 관객과의 새로운 예술적 소통을 시도한다.

연극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일 시 | 3월 7일(금)-8월 31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 장 료 | 전석 6만원

(KNN시어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4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2022년 1월 종이책으로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국내에서

만 30만 권 넘게 판매된 황보를 작가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2024년 CJ문화재단 스테이지업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휴남동에 서점을 오픈한 주인공 '영주'가 단골 손님들과 함께 고민과 위로를 나누며 용기를 얻는 이웃들의 연대기를 보여준다.

특히 원작을 제대로 살린 드라마와 귀에 쏙히는 가사, 아름다운 음악으로 초연부터 관객몰이에 성공하며 대학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울속도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테너 조윤환의 그대여~ 하이네와
커피 한잔을...

일 시 | 5월 30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자연 속 정원에 자리 잡은 울속도문화회관에서 모닝 커피와 함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울속도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5월에는 하이네의 대표적인 시집 '노래의 책(Buch der Lieder)'에 수록된 16곡을 엄선,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슈만이 음악적으로 생명력을 부여한 '시인의 사랑'을 테너 조윤환이 들려준다.

테너 조윤환은 리릭 테너로 맑고 아름다운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그동안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을 맡아 호평받아 왔다.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일 시 | 3월 13일(목)-6월 15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12세 이상 관람)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사이드 돌직구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은 스테디셀러극 '늘근도둑 이야기'.

대통령 취임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난 두 늙은 도둑은 노후 대책을 위해 마지막 한탕을 꿈꾸며 어느 부잣집에 잠입하지만 하필 그곳이 '그분'의 미술관. 엄청난 부와 권위를 자랑하는 '그분'의 미술관에는 세계적인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지만 작품의 가치를 모르는 두 늙은 도둑은 오직 금고만을 노리다가 결국 조 사실로 끌려가는데...

'늘근도둑이야기'는 지난 1989년 초연 당시 파격적인 정치풍자, 신랄한 시사코미디로 큰 호응을 얻은 후 매 시즌마다 당대의 화두를 반영한 풍자와 거침없는 애드립으로 크게 사랑받아왔다.

연극 아주 보통의 하루-Our Town

일 시 | 3월 15일(토)-5월 11일(일) 토·일요일
오후 3:00(5/5일 공연없음)
어댑터씨어터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만 10세 이상 관람)
문 의 | 어댑터씨어터 911-1447



손톤 와일더의 명작 '우리 읍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극 '아주 보통의 하루-Our Town'.

브로드웨이 최장기 연극 공연기록을 가진 작품으로, 부산에서도 극단 레퍼토리시스템 초연 이후 약 40년만에 무대에 오르는 'Our Town'은 작은 마을에서 펼쳐지는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한다.

특히 100석 규모의 소극장임에도 17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무대는 배우들의 연기와 관객의 상상력만으로 소극장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겨진 삶의 가치를 조명한다.

- 총괄프로듀서/심문섭
- 작/손톤 와일더
- 연출/심문섭, 유병은

원조 코믹극 딜리버리

일 시 | 3월 27일(목)-7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무엇이든 배달해 주는 신개념 딜리버리 서비스를 배경으로, 상상도 못 할 다양한 배달 의뢰를 통해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코믹 연극 '딜리버리'.

평범하지 않은 배달 의뢰로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딜리버리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다. 하지만 이젠 시작에 불과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극한의 배달들이 연이어 접수되는데... '딜리버리'에서는 위험천만, 사건사고, 우여곡절의 총집합 의뢰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되면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트러블, 연인과의 싸움, 부모님과 자식의 다툼으로 인한 오해와 분란을 이해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 진심 어린 이야기로 풀어낸다.

연극 시즈위 밴지는 죽었다

일 시 | 4월 26일(토)-5월 31일(토)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일-수요일 공연없음)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효로인디아트 623-6232



효로인디아트홀을 거점으로 예술인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예술기획사 효로인디넷이 기획, 제작한 연극 '시즈위 밴지는 죽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우리에게 연극 '아일랜드'로 유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겸 연출가인 아돌 후가드의 또다른 작품으로, 지난 1970년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를 살았던 흑인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본다.

이번 무대에서는 극단 새벽에서 28년째 활동해 온 이현식 배우와 시민연극제인 '테마연극제'를 통해 발굴된 젊은 배우 김기백의 연기 앙상블로 관객들에게 진한 울림을 선사한다.

- 연출/이성민

극단 아센 제67회 정기공연 가스등

일 시 | 5월 8일(목)-17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하늘바람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극단 아센 450-2544, 010-4802-8341



당신의 내면을 깨우는 미스터리 심리극 '가스등'.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조작하여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로, 우리에게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1944년 영화 '가스등'으로 유명하다.

이번 작품은 극단 아센의 '현대 고전 명품연극 작품전' 여섯 번째 작품으로, 미스터리 심리극으로서 인물 심리상태와 상황 이미지를 극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그로테스크한 무대표현 기법을 이용, 장면 속 인물의 심리적 양상들을 구현해낸다.

- 원작/패트릭 해밀턴
- 재구성, 연출/호민
- 예술감독/구보경
- 출연/구민주, 양성우, 이현옥, 임수연, 호민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일 시 | 5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10일 토요일
오후 2:00, 6:30, 11일 일요일 오후
2: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문 의 | 파워엔터테인먼트(주) 1660-3570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를 연극 무대로 옮긴 '바닷마을 다이어리'.

2023년 초연 무대에서 객석 점유율 96%를 기록하며 관객의 큰 사랑을 받았던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부모의 부재, 연인과의 헤어짐, 소중한 사람의 죽음 등 어딘가 결여되어 있던 네 자매가 서로를 통해 채워지고 위로를 받으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깊고 따뜻한 위로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배우 한혜진·박하선, 임수향·유이, 류이재·소주연, 설가은·유나 등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무르익은 연기를 펼친다.

박차정 의사의 순국 81주기 기념공연 독립뮤지컬 갈라

불굴의 여인: 의사 박차정

일 시 | 5월 20일 화요일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문 의 | 부산오페라연합회협동조합
0507-1330-3001



부산 동래구 출신의 여성 독립투사로, 그의 업적과 자주독립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뮤지컬 '불굴의 여인: 의사 박차정'.

박차정 의사는 일제에 국권이 강탈되기 직전인 1910년 5월에 태어나 광복되기 직전인 1944년 5월에 생을 마감하면서 34년의 온 생을 일제와 투쟁한 독립투사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 총예술감독/윤장미
- 작곡/이경
- 음악코치/박성미
- 안무, 연출/서연아
- 대본/오세민
- 출연/바리톤 장병혁, 부산시민뮤지컬단, 부산 주니어뮤지컬단

을숙도문화회관 제14회 스페셜아티스트 마당극 목화

일 시 | 5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을숙도문화회관 '스페셜 아티스트'. 5월에는 우리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와 애민정신을 신명나는 마당극으로 풀어낸 극단 큰들의 가족마당극 '목화'를 선보인다.

'목화'는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목화씨 열 알을 몰래 가지고 돌아와 무수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화를 꽃 피우고 마침내 재배에 성공한 문익점과 그의 장인 정전익의 애민정신을 해학과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산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큰들은 1984년 창단하여 40년째 활동하고 있는 마당극 전문예술단체로, 특히 경남 서부권 역사와 문화, 인물을 스토리텔링하는 다양한 마당극 작품을 선보여 왔다.

뮤지컬 번개맨 시즌2 번개맨 VS 번개맨?

일 시 | 5월 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5월 월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장소 |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VIP석(1층) 6만6천원, R석(2층) 4만4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클립서비스 1577-3363



시즌2로 더 강력하게 돌아온 뮤지컬 '번개맨'. 우주를 파괴하려는 계획에 실패한 가시벌 대장은 가짜 번개맨을 만들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시하고, 진짜와 가짜 번개맨이 동시에 등장하자 번개별 친구들은 혼란에 빠진다. 이 틈에 가짜 번개맨에게 제압당한 진짜 번개맨은 가시벌 불 감옥에 갇혀버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번개별 친구들은 번개맨을 구하기 위해 가시벌로 향하게 되는데... 과연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은 가짜 번개맨을 물리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특히 가짜 번개맨 등장으로 더욱 흥미진진해진 스토리와 새롭게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액션 퍼포먼스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가족극

뮤지컬 타키포오

몬스터 전쟁의 서막: 더 줌비

일 시 | 5월 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부산홀
입 장 료 | 전석 7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3만8천5백원)
문 의 | 율컴퍼니 1670-9788



유튜브 구독자 245만 명, 총 조회수 25억회를 돌파한 캐리온TV의 인기 캐릭터 타키, 포오와 함께하는 짜릿한 모험과 우정 이야기. 순수하고 밝은 성격의 청년 타키와 붉은 망토를 두른 노란 곰 포오의 '타키포오'는 '타키포오 이세계 여행사', '타키포오 코믹 어드벤처' 등 어린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인기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그들의 신나는 모험을 무대에서 직접 즐길 수 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환상적인 연출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번 무대는 특히 공연 중 등장하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타키와 포오의 모험에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2025 라이브 가족뮤지컬 알라딘

일 시 | 5월 5일 월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2만2천원) 조이컬처 070-7807-0701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중동의 민속설화 '알라딘과 마술램프'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무대. 머나먼 사막 속에 존재하는 신비의 아그라바 왕국.

좀도둑이었던 알라딘은 마법사 자파의 의뢰로 마법 램프를 찾아 나섰다가 그곳에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를 만나게 되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자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본인의 신분을 왕자로 속이지만 결국 자파에게 정체가 탄로나게 되는데...

스릴과 재미가 더해진 권선징악 스토리로 관객 모두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이번 무대는 특히 직접 제작한 인도풍의 배경과 3D로 움직이는 실감나는 영상이 극을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낸다.

월드 매직스타 콘서트

일 시 | 5월 3일 토요일 오후 2:00
장소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2층) 2만원(6세 이상 관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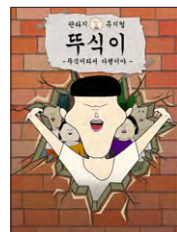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운대문화회관이 수준높은 마술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특별한 무대 '월드 매직스타 콘서트'.

TV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서 트롯마술사로 유명해진 국내 코메디 마술의 1인자 김민형 마술사가 사회를 맡아 관객과 소통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말레이시아 최고의 마술사 에런팡이 비둘기 마술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벌레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태국 최고의 코메디 마술사 펄시가 코메디쇼를 통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스토리가 있는 마술로 수차례 대회에서 입상한 최이안 마술사는 오싹한 호러매직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며, SBS '더 매직스타'에도 출연한 국제 마술사 커플 병구&핑키는 대형마술쇼를 통해 신기한 마술의 세계로 안내한다.

가족뮤지컬 뚜식이 : 뚜식이라서 다행이야!

일 시 | 5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 장 료 | 전석 6만6천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45% 할인)
문 의 | 썬더화랑이엔티 1800-6567



개성 강한 착화와 스토리로 유튜브 구독자 93만 명을 사로잡은 '뚜식이'를 뮤지컬로 제작한 '뚜식이라서 다행이야!'

이번 무대는 '뚜식이' 특유의 기상천외한 병맛 코미디와 따뜻한 가족애를 담은 코믹 판타지 뮤지컬로, 현실 공감 100%의 에피소드와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전개, 흥겨운 음악이 어우러져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도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다.

특히 주인공 뚜식이, 뚜순이와 이들의 유쾌한 가족 이야기를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력, 화려한 무대 연출로 새롭게 재해석하여 원작을 즐겨온 많은 이들에게 한층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가족뮤지컬 전설의 황금똥

일 시 |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전설의 황금똥을 찾아 떠나는 야채들의 흥미진진한 모험이야기를 그린 가족뮤지컬 '전설의 황금똥'. 어린 아이들의 장난으로 야채밭이 오염된다. 오염된 흙속에서 살아남은 대파와 감자, 당근, 호박은 오염된 흙으로 병든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전설의 황금똥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그들은 모험 중 거대한 폭풍과 비바람, 무서운 두더지의 공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과연 이들은 전설의 황금똥을 찾아서 야채밭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관객인 아이들과 함께 소리치며 응원하는 소통형 공연으로, 야채들의 여정에 아이들도 함께 한다.

- 프로듀서, 작곡/김태영
- 연출/장희원 • 대본/정아름

가족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 흩어진 버블잼을 찾아라!

일 시 |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2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전석 6만6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3만9천원)
문 의 | 세로수기획 1899-3423



바닷속 사랑스러운 인어공주들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 3D 애니메이션 '레인보우 버블잼'을 뮤지컬로 제작한 '레인보우 버블잼-흩어진 버블잼을 찾아라!'.

고래들이 바다왕궁으로 돌아오는 날, 말괄량이 인어공주 퍼플은 몰래 육지로 나갔다가 신비한 보석 '버블잼'을 깨트리고, 버블잼을 찾기위해 바다 왕궁 7명의 인어공주가 육지의 학교로 가게 되는데...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곱 공주들의 꿈을 찾는 이야기가 신나는 노래, 춤과 함께 펼쳐진다.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일 시 | 5월 11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2만2천원)
문 의 | ㈜조이컬처 070-7807-0701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명작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신데렐라'.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신데렐라, 어느날 그에게 마법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신데렐라는 요정 할머니의 주문에 순식간에 아름다운 드레스로 갈아입고 반짝이는 호박마차를 타고 왕자님의 성으로 가는데... 특히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화려한 군무곡부터 신데렐라, 왕자의 솔로곡 등 14곡의 뮤지컬 넘버, 그리고 아름다운 호박마차, 무대에서 변하는 신데렐라 드레스 등 실감나는 무대효과가 더해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명작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신데렐라'.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신데렐라, 어느날 그에게 마법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신데렐라는 요정 할머니의 주문에 순식간에 아름다운 드레스로 갈아입고 반짝이는 호박마차를 타고 왕자님의 성으로 가는데...

특히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화려한 군무곡부터 신데렐라, 왕자의 솔로곡 등 14곡의 뮤지컬 넘버, 그리고 아름다운 호박마차, 무대에서 변하는 신데렐라 드레스 등 실감나는 무대효과가 더해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공룡 애니멀쇼

일 시 | 5월 18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2만3천9백원)
문 의 | 극단가람 010-2284-4842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소재로 신비한 마술과 마임, 연기, 그림자 등 여러 장르를 융합시켜 탄생시킨 환상적인 무대 '공룡 애니멀쇼'.

탐험가 주니와 인디언 페니와 함께 떠나는 이번 무대는 화려한 무빙라이트 조명과 레이저 조명 등 다양한 조명으로 꾸며진 환상적인 공간 '인디언들의 빛의 매직쇼'를 시작으로 비둘기가 인간으로 바뀌는 '일루전 마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품질의 공룡이 눈앞에 등장하는 '공룡쇼' 등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무용

2025 부산발레시즌 샤이닝 웨이브 Shining Wave

일 시 | 5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11일 일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만 5세이상 관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2025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의 레퍼토리로 선보이는 창작발레 '샤이닝 웨이브'.

지난해 김주원 예술감독의 연출로 2024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의 오프닝 공연으로 초연된 '샤이닝 웨이브'는 정영 시인의 시 8편을 연사로 엮은 스토리에 이정윤 안무감독, 박소연 안무가의 안무로 이루어진 '몸으로 쓰는 시'로, '소녀, 고래, 바다, 바다의 정령, 고래잡이 사내들'이라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신비로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2025 시즌 오페라하우스 발레단과 함께 주역 무용수 윤전일, 이은수, 정혜윤, 박지수가 무대에 오른다.

가족뮤지컬 키즈팬더

일 시 |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 의 | 극단 심인 010-7420-3639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코믹 액션 성장극 '키즈팬더'. 평화로운 뽀족산 마을, 나쁜 물속 악당 팔론의 습격으로 위기에 빠지자 동물친구들은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할 용의 전사를 애타게 찾는다. 뽀족산 아래 용의 전사 훈련장에서는 무술 수련이 한창인데... 2008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지금까지 4편이 제작된 '쿵푸팬더'를 소재로 한 '키즈팬더'는 죽어도 용의 전사가 되고 싶은 똥동하지만 유쾌한 팬더 푸웅과 1등만이 최고라 생각하는 수제자 타이린의 좌충우돌 무술수련기를 다룬 작품이다. 특히 전문 액션 연기자들이 펼치는 차원이 다른 액션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신나는 공놀이와 주크박스 댄스타임 등 관객과 무대가 하나되는 객석 플레이로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코믹 액션 성장극 '키즈팬더'. 평화로운 뽀족산 마을, 나쁜 물속 악당 팔론의 습격으로 위기에 빠지자 동물친구들은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할 용의 전사를 애타게 찾는다. 뽀족산 아래 용의 전사 훈련장에서는 무술 수련이 한창인데... 2008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지금까지 4편이 제작된 '쿵푸팬더'를 소재로 한 '키즈팬더'는 죽어도 용의 전사가 되고 싶은 똥동하지만 유쾌한 팬더 푸웅과 1등만이 최고라 생각하는 수제자 타이린의 좌충우돌 무술수련기를 다룬 작품이다.

특히 전문 액션 연기자들이 펼치는 차원이 다른 액션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신나는 공놀이와 주크박스 댄스타임 등 관객과 무대가 하나되는 객석 플레이로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해설과 체험이 있는 쁘띠발레 갈라 콘서트

일 시 | 5월 24일 토요일 오후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무료(전체 관람가, 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발레라는 장르가 관객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산발레시어터가 마련한 해설과 체험이 있는 뽀띠발레 갈라 콘서트.

부산발레시어터는 지난 2014년 설립된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부산을 기반으로 창작 공연부터 클래식 전막 발레, 찾아가는 공연까지 폭넓은 작품 활동을 펼쳐 발레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쁘띠발레’는 동화 속 발레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제작된 공연으로, 특히 해설과 체험을 통해 관객들이 보다 친숙하게 발레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화 ‘신데렐라’,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등을 발레로 만날 수 있다.

콘서트

영도문화예술회관 명작공연시리즈 4

Playlist: Yeongdo 스탠딩 에그 콘서트

일 시 | 5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본래홀
입 장 료 | 전석 5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일상에 따뜻하고 편안하게 녹아드는 음악을 들려주는 스탠딩 에그 콘서트.

스탠딩 에그는 지난 2010년 EP ‘Standing Egg’로 데뷔한 후 어쿠스틱 팝과 이지 리스닝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음악들을 선보이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2016년 8월 발표한 싱글 ‘여름밤에 우린’이 발매 직후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고, 2020년에는 발표된 지 8년이 지난 ‘오래된 노래’가 차트 역주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래된 노래’, ‘Little Star’ 등 스탠딩 에그의 대표곡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전해준다.

영상

영도문화예술회관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피노키오

일 시 | 5월 7일 수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무료(전체 관람가, 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하는 ‘SAC on Screen’ 5월 상영회.

‘SAC on Screen’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영상 상영회로, 아티스트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생생함과 10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각도에서 담아낸 역동적인 화면, 현장감 넘치는 5.1채널 입체 서라운드 음향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인형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풍부한 감정 표현이 빛을 발하는 일본 인형극단 무수비자의 인형극 ‘피노키오’를 감상할 수 있다.

행사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일 시 | 4월 26일(토)-5월 24일(토)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문 의 | (사)부산예총 631-1377, www.artpusan.or.kr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25 부산청소년예술제.

주요 프로그램

- 4월 26일(토)-27일(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야외광장 와글와글 예술파티
- 4월 27일(일) 오전 11:00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부산청소년세계차문화예술제
- 4월 27일(일) 오후 2: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개막식
- 5월 3일(토) 오후 2:00(예선), 24일(토) 오후 3:00(본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2025 청소년 K-POP 페스티벌
- 5월 4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청소년무용예술제

해운대문화회관 On Screen Concert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2024

두다멜&아스믹 그리고리안

일 시 | 5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5천원(6세 이상 관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 열리는 생생한 공연 영상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해운대문화회관 On Screen Concert.

5월에는 유럽 3대 축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2024’ 실황을 상영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2024년 8월 24일 잘츠부르크 대형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차세대 오페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아스믹 그리고리안이 출연하는 실황 연주를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 5월 7일(수)-10일(토) 부산시민회관 전시실1 학생사진공모전
- 5월 11일(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회의실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 5월 16일(금)-17일(토) 다솜아트홀/백양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찾아가는 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 ‘청소년 예술 어울마당’
- 5월 17일(토) 오후 2: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시낭송대회
- 5월 17일(토) 오후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 국악제 ‘우리 음악의 비상을 위하여’
- 5월 19일(월)-24일(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학생그림공모전
- 5월 20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청소년음악회
- 5월 24일(토) 오후 1:00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5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

국내 최대 수준의 오페라, 콘서트 영상물을 구비하고 있는 오페라바움은 실재공연을 관람하기 전 감상회를 통해 충분한 연습 시간을 제공하며 연주자를 초청, 작은 연주회를 여는 등 클래식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월에는 매주 월요일 고전, 낭만, 현대음악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작곡가를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자유토론,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4부작)/제1

부 '라인의 황금'(2일~3일), 2부 '발퀴레'(9일~10일), 제3부 '지그프리트'(16일~17일), 제4부 '신들의 황혼'(23일~24일), 푸치니 '나비부인'(30일~31일)

콘서트/비에나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그레이트'(5일, 10일), 브람스 '교향곡 제2번'(12일, 17일),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19일, 24일), 말러 '교향곡 제10번', '대지의 노래'(26일, 31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 명곡연주회 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다송 뮤직 스튜디오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12만원, 1회 청강비 2만원 (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 문의)



▼▼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여 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5월부터 석 달간 진행되는 2025년 2분기 강좌에서는 드보르자크, 리스트, 쇼팽 등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음악세계를 살펴본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로 있으며 현재 해운대문화회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래식 입문자 환영.

프로그램

추억의 명곡연 다시보기 '파바로티와 친구들' 5월의 음악가 '드보르작'-생가 다멘테리 기행,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첼로 협주곡 가정의 달 특집 '아버지 주재 클래식 음악' 하이 라이트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전막 감상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제3, 4번',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뮤지컬 영화 '미스 사이공' 감상회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 교향곡 제3번 '영웅'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5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일(목)·15일(목) 오후 2:00, 29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문자예약)



▼▼

1일(목)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12일(월) 박홍규와 함께하는 우정의 사상사: 자유와 평등의 연대

• 강사/박홍규(영남대학교 명예교수)

15일(목)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19일(월) 리뷰 백남준: 미디어 속 백남준, 그 이후의 백남준

• 강사/김안나(부산현대미술관 '백남준전' 도슨트)

26일(월) 시네마 언노운: 보이지 않는 영화들 '계절의 끝'(2020, 18min, 감독 이남영, 부산독립영화제 대상), '강을 건너는 사람들'(2022, 40min, 감독 이남영, 부산독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 참석: 이남영(영화감독), 김영광(영화평론가)

29일(목)하이쿠 산책

클래식음악 인문학강좌

Beethoven愛 美치다

일 시 | 5월 13일(화)~7월 8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동래구 평생학습관

입 장 료 | 무료(20명 선착순,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 의 | 동래구 평생학습관 550-4467

▼▼

'음악의 악성'이라 불리는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Beethoven愛 美치다'.

• 강사/김옥균(시인, 음악평론가, 전 MBC PD)

제199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일 시 | 5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010-63670-0149

▼▼

- 출연/박옥 시인 외 회원 23명
- 초대시인/조민자, 강욱숙 시인
- 사회/김병래(전 KBS 아나운서)
- 초청음악가/바리톤 배용, 클래식기타 고충진

전시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일 시 | 2024년 12월 14일(토)-6월 8일(일)
DUEX 부산
입 장 료 | 일반 2만5천원, 청소년 1만9천원
(만14세이상관람 평일예매시 10% 할인)
문 의 | ㈜덕스앤덱스 02-2261-1393



‘토미에’, ‘소용돌이’, ‘소이치의 저주일기’, ‘목매는 기구’ 등 단편부터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독보적인 공포만화 작가

이토 준지가 선사하는 치명적인 공포의 세계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부산전.

이토 준지의 작품을 기반으로, 스릴과 공포, 기괴한 상상력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다.

- 관람시간/오후 3:00~7:00(주말 및 공휴일)
오후 1:00~7:00 화-수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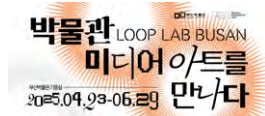
LOOP Lab Busan 연계 전시

박물관, 미디어 아트를 만나다

일 시 | 4월 23일(수)-6월 29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기증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부산시립미술관이 주관하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 연계전시로, 부산박물관이 처음 선보이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전.

전통과 현대,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화와 영상이 한 공간에서 융합된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만날 수 있다.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8회 한국화전

일 시 | 5월 13일(화)-5월 19일(월)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2025 KT&G 상상마당 부산 기획 체험전
GIFT Vol. 4 시장에 서면

일 시 | 2월 22일(토)-5월 18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입 장 료 | 일반(만 19세 이상) 1만5천원
유아~청소년(만 4세~18세) 1만원
문 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

TIMESLIP-bluehour展
영도다리 너머

일 시 | 4월 10일(목)-5월 3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짐아비농 : 21세기 스마일 전

일 시 | 4월 17일(목)-8월 31일(일)
포디움다이브엠
입 장 료 | 전석 1만2천원(예매시 할인)
문 의 | (주)크리스카홀딩스 752-2200

김시현 초대 개인전

살랑, 결이 스미다

일 시 | 5월 19일(월)-6월 21일(토)
갤러리한스
문 의 | 갤러리한스 784-0233



전통 보자기를 현대적 회화로 풀어내는 김시현 작가 초대전.

김시현 작가는 초·중등 미술

교과서에도 소개된 예술가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그 현대적 확장을 대중에게 알려왔다.

천의 결과 색, 겹의 구조를 회화적 언어로 재해석하여 전통의 미와 현대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섬세하게 보여줄 이번 전시는 보자기를 통해 시간, 기억, 감정을 감싸 안는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2025년 금정문화회관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팝아트 특별교류전

Korea x Japan 'POP-Bridge'

일 시 | 4월 10일(목)-6월 22일(일)
금정문화회관 금섬미술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일본의 젊은 팝아티스트의 작품을 통해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팝아트 특별교류전.

‘팝아트로 잇는 두 나라,

두 문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과 일본의 팝아트를 통해 대중문화와 현대사회의 흐름을 비교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전시는 ‘아이콘의 재구성’, ‘소비와 욕망의 시각화’, ‘전통과 현대의 대화’, ‘일상의 발견’ 등 4개의 구성으로 진행되며,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색전-일상의 사색

일 시 | 5월 20일(화)-5월 29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박경희, 윤희배, 신지연 등 3명의 회화작가가 참여한 ‘색전-일상의 사색’전.

김경희 현대조각보전 반짝이는 전통

일 시 | 5월 30일(금)-6월 5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전통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 섬유 예술로서의 확장을 모색하며 조각보를 재해석, 대중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반짝이는 전통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경희 작가의 현대조각보전.

전지적 관객 시점 · 오늘도 공연장에 갑니다

단순한 소리가 울린 마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I ‘부산, 바다’

글 김상현 북구 양달로

부산에서 나고 자란 나는, 누구보다 이 도시를 안다고 믿었다. 그러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작 위촉곡 시리즈 I ‘부산, 바다’를 관람한 후 그 확신이 사라졌다. 부산 토박이인 내가 국악과 부산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사회자, 지휘자, 연주자들, 작곡가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만 있던 이미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관객들은 그들이 함께 만든 호흡과 리듬을 통해 부산 바다의 부드러움과 거침을 온몸으로 체험했으며, 장내에는 감탄이 흘렀다. 국악을 ‘깽깽, 징징, 쿵덕쿵덕, 쓱쓱’으로, 부산을 ‘산, 바다, 문화



가 있는 도시’로 치부하고 있던 나조차도 그 편견을 내려놓고 국악과 부산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대미>에서 장구의 장단이 몰아칠 때는 그 소리에 흠뻑 빠져 허우적댔다. 그 순간 예술의 본질이 예술가와 관객의 감정 교류에 있음이 와닿았다. 극단적으로는 단 두 줄, 두 가지 음으로 이뤄진 단순한 악기들이 복잡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 음악회’

글 김하느래 부산진구 중앙대로

3월 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미완성 음악회’를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제618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진행된 공개 리허설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날 리허설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 중 3~5악장이



연주되었다. 평소 완성된 공연만 접하던 터라, 연습 과정에서 지휘자의 디렉션과 단원들의 호흡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신선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홍석원 지휘자의 목소리였다. 평소 무대에서 들을 수 없는 그의 생생한 음성이 객석까지 전해졌고, “브라보, 브라보” 하고 외치는 리드미컬한 말투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느껴졌다. 손끝으로 리듬을 조율하고, 몸짓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목소리로 감정을 불러넣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연 같았다. 지휘자의 설명 한마디에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고, 단원들이 미묘한 뉘앙스를 맞춰가는 과정은 감동적이었다. 한 음 한 음 맞춰가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순간들을 보며,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개별 연주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움직이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공개리허설은 단순한 예행연습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미완성 음악회를 통해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한 후, 정기공연까지 함께 본다면 더욱 풍성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부산대첩

김종대 지음 / 가디언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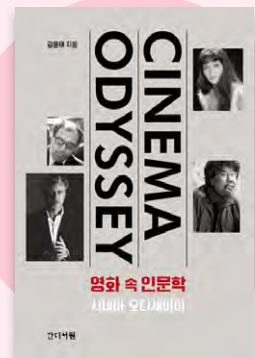
10월 5일은 '부산시민의 날'이다. 이날은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1592년 9월 1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부산대첩' 기념일이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년 연이은 세 번의 승첩(옥포, 당포, 한산)을 거두자 사기가 꺾인 왜군은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결정적 승기를 잡기 위해 왜군의 본진이 웅크리고 있던 부산포로 향했다. 판옥선 74척과 거북선 2척 등의 연합함대를 이끌고 6~7만 명의 병력과 병선 470여 척이 정박하고 있던 부산포를 공격해 100여 척을 깨뜨리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왜적의 수륙병진 전략을 완전히 파탄시켜 버린 큰 승리(대첩)였다.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든 전투가 바로 '부산대첩'이었으니, 임진 7년 전쟁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다. 50년 이순신 공부로 장군의 생애와 정신을 전파하고 있는 저자 김종대(전 헌법재판관)는 역사학·군사학계가 오래전 관성대로 정한 '부산포해전'이라는 한계 많은 평가 대신 '부산대첩'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며,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지로 이 책을 썼다. 1592년 부산포에서 벌어진 그날의 전투를 마치 누군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유혹의 전략, 광고의 세계사

김동규 지음 / 푸른역사 / 4만5천원

"따봉!" 이 말을 모르는 한국사람이 있을까. '매우 좋다'는 의미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 사용해도 통하는 이 말은 우리말이 아니다. 1989년 말과 1990년 초반에 한 오렌지 주스의 TV 광고에 등장한 외래어다. 동명대학교 김동규 교수가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서 21세기 SI광고까지, 광고의 숨겨진 역사를 탐험한다. 여러 광고상을 받은 현장 출신의 대학교수가 쓴 이 책은 한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본격적 세계광고사다. 광고의 기법과 트렌드는 물론, 소비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망치(하드 셀)'와 소비자 감성을 자극하는 '솜사탕(소프트 셀)'을 축으로 시대적 변화·세계사적 흐름을 짚어낸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광고산업의 메커니즘과 시대 변화를 고찰한 해설서이다. 광고를 보면 경제, 정치, 설득 커뮤니케이션, 예술, 문학, 심리학, 기호학 등 다양한 렌즈를 통해 당대인의 삶을 읽을 수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광고사의 총체적 조망을 위해 로마 시대 검투사, 전쟁과 페미니즘, 노예제도, 인디언 박해, 뇌과학과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스토리와 함께 풀어간다. 그래서 광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광고와 관련이 있다.



영화 속 인문학 시네마 오디세이아

김윤태 지음 / 간디서원 / 2만원

장뤽 고다르와 왕가위에서 크리스토퍼 놀란과 봉준호까지, 영화를 풍부하게 조망하여 인문학의 숲으로 안내해 주는 색다른 영화 평론서. 오늘날 영화는 대중의 일상적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영화는 개인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제작자와 관객과의 상호작용은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 취향을 만든다. 곧 영화가 재현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는 수많은 관객을 통해 사회를 재구성한다. 이처럼 영화를 만들고 보는 행위는 개인적 행위이자 사회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권력관계, 이데올로기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알아야만 전체적인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로 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윤태 저자는 이 책에서 영화와 인문사회과학의 만남을 이야기한다. 영화는 이미지로 표현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감독의 정체성, 배우의 성격, 연기력 등을 분석하는 기술적인 비평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영화의 숲을 보아야 한다. 곧 철학, 사회학, 미학 등 관련 인문학을 동원한 사회적 비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국회부산도서관 우수 협력기관 공로패 수상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이 3월 31일 열린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 협력기관으로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부산도서관(관장 황정근) 주최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부산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우수 협력기관들이 모여 다양한 이벤트와 시상식을 진행한 가운데 (재)부산문화회관이 '문화행사 개최' 분야에서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024년 3월(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7월(시립극단), 8월(시립교향악단) 세 번에 걸쳐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진행했으며, 올해 9월에도 시립극단이 출연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차재근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회부산도서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품격있는 문화행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문화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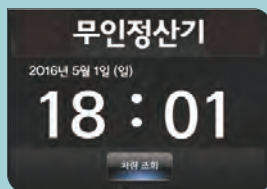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롯데쇼핑(주) 롯데몰 동부산점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이 롯데쇼핑(주) 롯데몰 동부산점(점장 윤형진)과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4월 9일 부산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부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예술가와 창작자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5월 31일, (재)부산문화회관의 '2025 시민뜨락축제' 마지막 무대가 기장에 위치한 롯데몰 동부산점에서 부산시립예술단(합창단·극단)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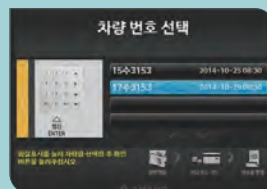
P 부산문화회관 주차 정산 안내 (무인정산기 등록안내)



Step 1 차량조회 선택



Step 2 차량번호 입력



Step 3 차량선택



Step 4 바코드 확인 후 결제
(바코드 확인 인식 후 폐기)

2025년도 (재)부산문화회관 상반기 아카데미 예술을 짓다

그동안 차별화된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재)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가 2025년 상반기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수강생들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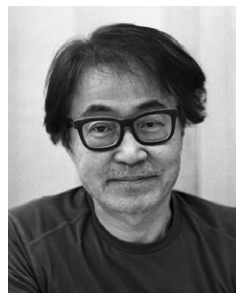
‘예술을 짓다’라는 타이틀로 선보이는 이번 상반기 아카데미는 ‘공간으로부터의 위로’, ‘시각과 청각, 몸으로부터의 위안’ 2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정원, 조경, 건축, 음악, 미술, 무용 등 색다른 주제의 강좌를 통해 예술이 주는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5월부터 시작되는 ‘공간으로의 위로’는 주변 공간에서의 예술이 가진 치유, 회복력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16일 건축사학자 임석재의 ‘세계 극장 건축 역사기행’을 시작으로 8개의 특별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있는 임석재는 이번 강연에서 ‘그리스-로마-중세-르네상스-바로크-18세기-19세기-현대’에 이르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극장의 건축적 구성과 특징, 사회적 배경, 역사적 의미 등을 살펴본 뒤 한국의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극장 건축의 시대성과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24일에는 세계 선도적 건축가 11인에 선정된 ‘땅과 하늘을 그리는 건축가’ 조병수의 ‘땅과의 대화’가 펼쳐진다. 조병수 건축가

는 건물의 형태보다는 자연의 본질, 그리고 그 나머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지혜의 건축이라며 이 모든 것이 땅과 더불어 사는 건축에서 시작이 되기에 이번 강연을 통해 땅으로의 건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6월 13일에는 부산의 건축·도시디자인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이끄는 부산시 제3대 총괄건축가인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과 교수의 ‘인문으로 보는 도시, 부산’이 진행된다. 현재의 도시공간과 건축은 이 도시에 살았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가장 뚜렷한 흔적, 즉 사람들의 무늬(人紋)이다. 부산의 인문(人紋)을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와 부산의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본다. 17일에는 국내 대표 민간정원 베케를 운영하는 더가든 대표인 ‘자연과 공생하는 가드너’ 김봉찬의 ‘점·선·면으로 마주하는 자연’이 펼쳐진다. 이번 강연에서는 자연의 질서체계인 점·선·면의 원리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짚어 보며, 이를 활용하여 정원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영국 첼시 플라워쇼 3골드 메달리스트로 정원디자이너이자 환경미술가인 황지해는 18일 ‘모퉁이에 비추이는 태양’이라는 주제로, 정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와 환경, 생태계 잠재력을 엿보며 존재에 대한 진지한 탐구시간을 갖는다.

2024 세계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디자이너 고성호는 20일, ‘이야기는 어떻게 공간이 되는가(공간의 소멸과 재생)’라는 주제로, 소멸해가는 장소와 잊힌 기억 위에 삶의 이야기를 짓는다. 칠암사계, 선유도원, 성림목장 등 그의 작업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과 함께 존재하는 의미를 묻는다. 한예종 건축과 명예교수이자 벽산문화재단 이사장인 전통건축 전문가 김봉렬은 25일, ‘건축의 시간, 영원한 현재(우리나라 건축 역사·인문학)’라는 주



- 1 건축사학자 임석재
- 2 전통건축 전문가 김봉렬
- 3 땅의 건축가 조병수
- 4 부산시 총괄건축가 우신구

5 자연과 공생하는 가드너
김봉찬

6 건축 디자이너 고성호

7 환경미술가 황지해

8 정원인문학자 김수진

제로 이 땅에 남겨진 건축적 폐허들의 번역을 통해 당시의 건축 사유들을 그려보고, 그 건축적 사유들을 통해 당시의 정치 문화적인 사회사를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27일에는 이번 '공간으로의 위로' 마지막 강연자인 정원아카데미 리케이온 대표인 정원사 김수진이 '자연을 돌보는 삶, 정원사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통시적인 정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또다른 주제의 강좌 '시각과 청각, 몸으로부터의 위안'은 2025 루프 랩 부산 '타임 큐비즘 Time Cubism'의 전시연계 특강으로 진행되는 두 개의 강좌와 '클래식 교양' 시리즈 강연, '무용 워크숍' 시리즈 강연으로 진행된다. '타임 큐비즘 Time Cubism'은 오늘날 급변하는 미디어 기술과 예술 융합의 다양한 형식을 보여주는 전시로, 4월 26일에는 '슈퍼인텔리전스 시대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과 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를 역임한 Hzone 이대형 대표의 강연이 열리며 5월 9일에는 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 허대찬 편집장의 '미디어아트 탐색, 당신이 몰랐던 기술과 예술의 은밀하고 과감한 관계'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흥미롭게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가 주는 의

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

'클래식 교양' 시리즈 강연에서는 국립창원대학교 이동신 교수의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클래식 산책'이 5월 한달간 매주 토요일 4차례 진행되며, KBS 부산 제1라디오 '부산의 오늘은' 토크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옥이 '시대의 선율, 기악과 성악으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6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 4차례 강연을 갖는다. 이번 강좌는 클래식 초보자들도 클래식 음악사의 큰 흐름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쉽고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창작예술가 숨 컴퍼니 대표로 소셜 댄스 전문가로 활동하는 송윤경은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니나네나 춤 워크숍'을 5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 4차례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나간 삶 속에 경험을 통한 몸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춤으로 표현되는, 누구나 춤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경험하여 춤으로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강좌이다.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9 지휘자 이동신

12 큐레이터 이대형

10 클래식 전문가 김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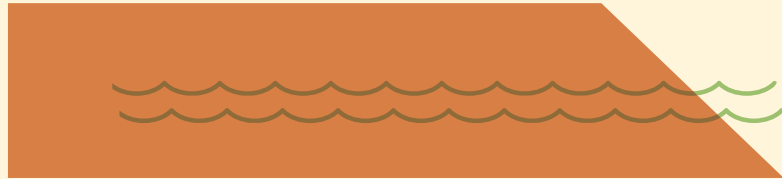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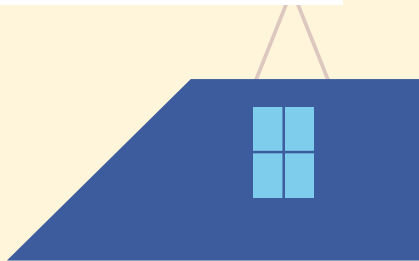
13 큐레이터 허대찬

11 소셜댄스 전문가 송윤경



예술을 짓다

접수기간 2025. 4. 21(월) 14시



공간으로부터의 위로

문화회관 챔버홀, 시민회관 소극장,
배움터 컨퍼런스홀, 도모헌

5월 건축사학자 임석재

이화여대 건축과 교수

땅의 건축가 조병수

조병수건축연구소 대표

6월 부산시 총괄건축가 우신구

부산대 건축과 교수

자연과 공생하는 가드너 김봉찬

더가든 대표

정원디자이너 황지해

영국 첼시플라워쇼 3골드 메달리스트

건축 디자이너 고성호

PDM 파트너스 대표 2024 세계건축상

전통건축 전문가 김봉렬

한예종 건축과 명예교수

정원인문학자 김수진

리케이온 대표

시각과 청각, 몸으로부터의 위안

클래식 교양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클래식 산책

컨퍼런스홀 | 이동신 | 국립 창원대 음악과 교수

시대의 선율, 기악과 성악으로 듣다

컨퍼런스홀 | 김정옥 | 경성대 평생교육원 강사

시니어 무용 나나네나 춤 워크숍

배움터 연습실 | 송윤경 | 창작예술가 숨 컴퍼니 대표

전시 연계 수퍼인텔리전스 시대의 예술

컨퍼런스홀 | 이대형 | 에이치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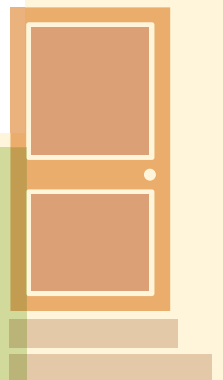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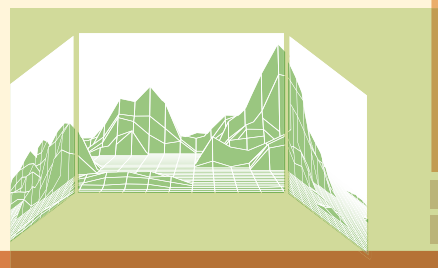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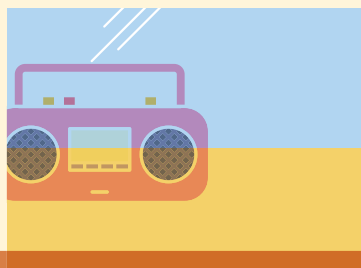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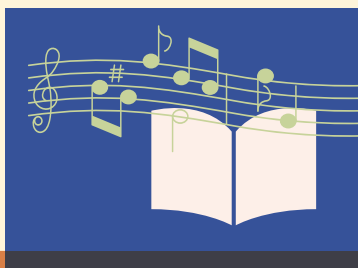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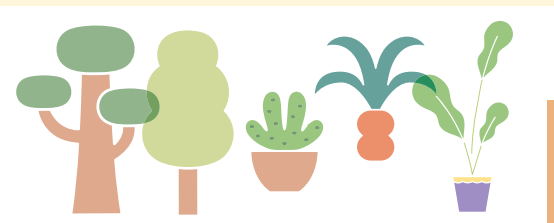
미디어아트 탐색, 당신이 몰랐던 기술과

예술의 은밀하고 과감한 관계

컨퍼런스홀 | 허대찬 | 앨리스온 편집장



접수 및 문의 www.bscc.or.kr | 051-607-6000(ARS2번)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일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일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5.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 | 중극장

전석 20,000원

북유럽 2025. 7. 24.(목) 7:30pm - 7. 25.(금) 11:00am | with 조성현
프랑스 2025. 8. 28.(목) 7:30pm - 8. 29.(금) 11:00am | with 브랜든 최
영국 2025. 10. 30.(목) 7:30pm - 10. 31.(금) 11:00am | with 황세희
• 지휘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문화 | 대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2025. 5. 29.(목) 7:30pm #3. 부산네오팔하모닉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4번 외
• 지휘 | 홍성택 • 피아노 | 노윤화
2025. 7. 25.(금) 7:30pm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3번 외
• 지휘 | 윤상운 • 비올라 | 김남중 • 클라리넷 | 백동훈
※ 7세 이상 관람



독일 고전주의 전통의 정수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5. 5. 2.(금) 7:3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서로 다른 음악적 깊이가 만나 빛어내는 우정의 선율
김영옥&김다솔 듀오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5. 5. 3.(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바이올린 | 김영옥
• 피아노 | 김다솔
※ 7세 이상 관람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춤
국립현대무용단 <암! 암! 암!>

문화 | 중극장 2025. 6. 14.(토) - 6. 15.(일) 2:0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안무 | 밝닝쿨, 인정주
※ 48개월 이상 관람(추천 연령 6세 이상)



무더위를 즐기는 기발한 상상력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

문화 | 대극장 2025. 7. 5.(토) 11:00am, 2: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연출 | 진영섭 • 원작 | 안영달 • 대본 | 윤희경
※ 24개월 이상 관람



마지의 세계로 떠나는 두 광대의 여정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마임서커스 <글로브(Glob)>**

문화 | 중극장 2025. 7. 16.(수) 11:00am, 6: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추천 연령 6세 이상)



눈과 귀로 즐기는 환상적인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멀티미디어퍼포먼스 <루멘스(Lumens)>**

문화 | 중극장 2025. 7. 19.(토) 11:00am, 2: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문화 | 대극장 2025. 7. 17.(목) - 18.(금) 7:30pm,

19.(토) 2:00pm,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연출, 재구성 | 김지용 • 원작 | W. 셰익스피어
※ 7세 이상 관람(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권장)



새로운 세상의 갈망, 민족의 혼을 되찾으려는 의지와 저항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문화 | 대극장 2025. 8. 17.(일)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파멸의 빌미는 무엇인가
경남도립극단 교류공연 연극 <빌미>

문화 | 중극장 2025. 8. 2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 최원석
※ 14세 이상 관람



<팬텀싱어4>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유일무이한 카운터테너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운성&성민제&고의석**

문화 | 대극장 2025. 9. 5.(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문화 | 중극장 2025. 9. 6.(토)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

연극 <뽕아>

문화|중극장 2025. 11. 14.(금)-16.(일) 시간미정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극작|김은성 • 연출|김태형
※ 14세 이상 관람



현대무용의 혁신 그 자체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문화|대극장 2025. 11. 21.(금) 7:30pm,
22.(토) 3: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예술감독|Katrín Hall • 안무|Alexander Ekman
※ 14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이 만드는 꿈의 무대

<2025 제야음악회>

문화|대극장 2025. 12. 3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연주|(재)부산문화회관 시미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도심 속 문화 쉼터

2025 시민트락축제

시민|야외광장 2025. 4. 11.(금), 4. 18.(금), 4. 25.(금), 5. 2.(금),
5. 9.(금) 12:10pm
무료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시민|소극장 2025. 5. 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시민|대극장 2025. 5. 1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 간판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만들어내는 울림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시민|대극장 2025. 5. 29.(목) 7:3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90,000원 A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인공, '지붕 위의 바이올린' '모비딕' '폐임' 주역
살롱 드 바이올린 II <KoN(콘)>

시민|소극장 2025. 6. 20.(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5년 제5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초청작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

시민|소극장 2025. 6. 27.(금) 8:00pm
6. 28.(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출연|강애심, 장은정, 최지연, 김혜숙, 조민수
※ 36개월 이상 관람



세기를 넘어 관객을 매혹시키는 최고의 클래식 발레
**모스크바 라 클래식 발레단 월드투어
<백조의 호수>**

시민|대극장 2025. 7. 12.(토)-13.(일)
2:00pm, 6:30pm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 8세 이상 관람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물에 관한 의심과 질문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시민|대극장 2025. 8. 30.(토) 2:00pm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안무|김보라
※ 7세 이상 관람



송승환이 만든 첫 번째 대형 가족뮤지컬

뮤지컬 <정글북>

시민|대극장 2025. 9. 6.(토) 11:00am, 2:00pm, 4:30pm,
9. 7.(일) 11:00am, 2:00pm
R석 77,000원 S석 55,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 아동 단독 입장은 11세(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능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율, 부산의 미래를 울린다!

2025 대학 교향악축제

시민|대극장 2025. 11. 26.(수)-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 7세 이상 관람



2024년 서울미래연극제 초연, 작품상·연출상·연기상 수상

연극 <오하마백씨행장 완판본>

시민|소극장 2025. 11. 28.(금) 7:30pm,
29.(토) 2: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출연|오치운
※ 14세 이상 관람



놓칠 수 없는 겨울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2025. 12. 5.(금) 7:30pm,
6.(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48개월 이상 관람



©Korean National Ballet

우리 크리스마스에 볼까요?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시민 | 대극장 2025. 12. 27.(토) 5:00pm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 아이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5. 8.(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샌드아트 | 노선이
• 내레이션 | 이혁우, 오희경



제620회 정기연주회
NEW WORLD

부산콘서트홀 2025. 5. 23.(금) 7:30pm
• 지휘 | 홍석원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6. 18.(수)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

문화 | 대극장 2025. 6. 1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첼로 | 최하영



부산시립합창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문화 | 대극장 2025. 5. 3.(토) 11:00am, 3:00pm,
5. 4.(일) 5:00pm
• 지휘 | 이기선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310밴드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

문화 | 중극장 2025. 6. 20.(금) 7:30pm
• 객원지휘 | 성상철



제197회 정기연주회
2025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5. 7. 2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문화 | 대극장 2025. 9. 1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UKO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 칸타타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연주 | UKO



부산시립무용단

제191회 정기공연
남풍

문화 | 대극장 2025. 5. 9.(금) 7:30pm,
5. 10.(토) 3:00pm
• 연출 | 이정윤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5. 7. 11.(금) 7:30pm, 7. 12.(토) 3:00pm
• 연출 | 이정윤



제192회 정기공연

해외 안무가 프로젝트(가제)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 | 이정운



특별공연

홀로홀출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0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초연의 밤>

문화 | 대극장 2025. 6. 24.(화) 7: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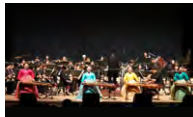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5. 7. 22.(화) 7:30pm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광복의 빛을 넘어

문화 | 대극장 2025. 8. 14.(목) 7:30pm



제231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I 위대한 유산

문화 | 대극장 2025. 9. 30.(화) 7:30pm

• 지휘 | 이동훈



제232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V 부산 국악 작곡 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5. 10. 28.(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11. 21.(금) 7:30pm



제233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부산-강릉 KTX 개통 기념 <이음> 국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5. 12. 18.(목)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문화 | 사랑채극장 2025. 6. 6.(금)-7. 6.(일)

주말 공휴일 10:30am, 2:00pm

• 작 | 김영하 • 작곡 | 이영재

• 연출 |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5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5. 5. 13.(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5. 6. 14.(토) 5:00pm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6.(화)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가족뮤지컬 <엄마, 같이 걸을까>

문화 | 대극장 2025. 5. 31.(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11. 1.(토) 5:00pm

• 출연 |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지금 놓치면 없다! 누구보다 빠르게!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얼리버드 이벤트

4월 마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30%
4.30.(수)까지

가족 뮤지컬
수박 수영장

2025. 7. 5.(토) 11:00am 2: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55,000원 | S석 33,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40%
4.30.(수)까지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마임서커스 글로브 (Glob)

2025. 7. 16.(수) 11:00am 6: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40%
4.30.(수)까지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멀티미디어퍼포먼스 루멘스 (Lumens)

2025. 7. 19.(토) 11:00am 2: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40%
4.30.(수)까지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2025. 9. 6.(토) 2: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5월 마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50%
5.31.(토)까지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2025. 8. 30.(토) 2: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50%
5.31.(토)까지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마**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2025. 11. 21.(금) 7:30pm
11. 22.(토) 3: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VIP 100,000원 |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

6월 마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40%
6. 8.(일)까지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2025. 7. 17.(목) ~ 18.(금) 7:30pm
7. 19.(토) 2:00pm,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60%
6.30.(월)까지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2025. 8. 17.(일) 3: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30%
6.30.(월)까지

경남도립극단 교류공연 연극
빌미

2025. 8. 23.(토) 3: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20%
6.30.(월)까지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운성 & 성민재 & 고의석

2025. 9. 5.(금)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30%
6.30.(월)까지

연극
오함마백시행장 완판본

2025. 11. 28.(금) 7:30pm
11. 29.(토) 2: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R석 40,000원 | S석 20,000원



얼리버드
(조기예매)
할인율
30%
6.30.(월)까지

2025 제야음악회

2025. 12. 31.(수)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ARS 1번)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종료**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종료**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잠비나이×미역수염 콘서트 **종료**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3:00 **종료**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종료**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3. 부산네오폰하모닉오케스트라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압! 압! 압!>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바레따에 살고 있군요>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가족뮤지컬 <수박수영장>

2025년 7월 5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글로브(Glob)>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1:00,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7:30 40매)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로미오와 줄리엣>

2025년 7월 17일(목)-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루멘스(Lumens)>

2025년 7월 19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경남도립극단 순회공연 연극 <빌미>

2025년 8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2025년 8월 30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 종료

9월 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2025년 9월 6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0매)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종료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30매)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30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종료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종료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2025 제야음악회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팀(607-6072)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엔(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손혜경 손내과의원 원장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안진우 경성대학교 교수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엘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Loop Lab Busan〉 연계전시
타임큐비즘 Time Cubism

2025.04.18. - 05.10.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월요일 휴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BMA
BUSAN MUSEUM OF ART

Loop Lab Busan



날리니 말라니
Nalini Malani

카민 르차이프라스
Kamin Lertchaiprasert

김기라
Ki-ra KIM

인공자연
Artificial Nature

LOOP LAB
BUSAN 2025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고객지원팀(607-6071)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참여기간 : 2025. 4. 25.(금) ~ 5. 18.(일)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5. 26.(월)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트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4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3881	010-****-4515	010-****-1809
010-****-0593	010-****-4011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사내)
051) 611-851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 977-888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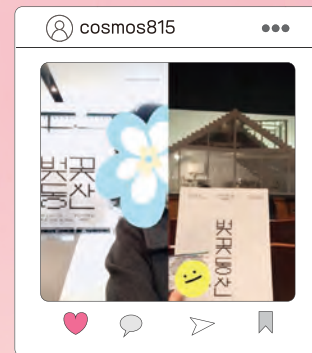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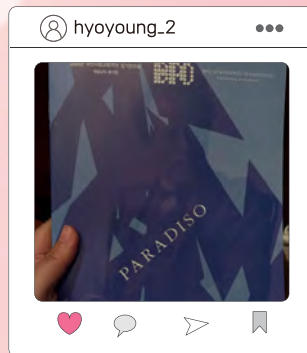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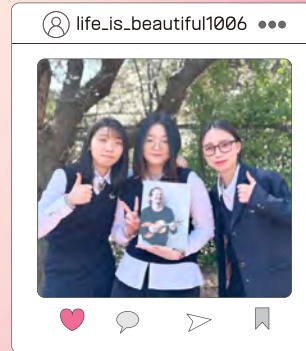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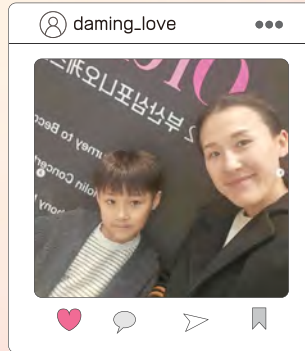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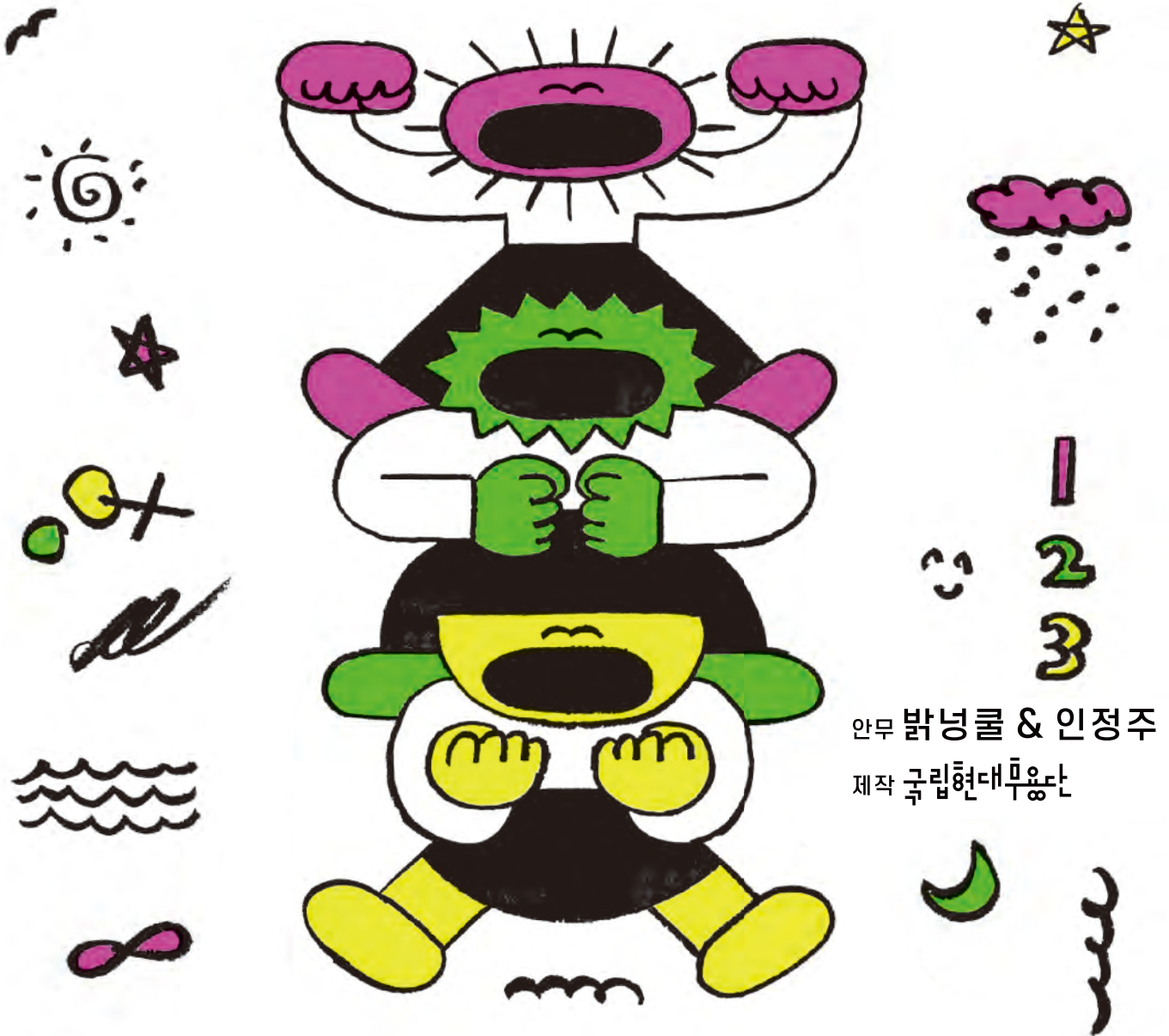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 무용

압!압!압!



안무 박녕쿨 & 인정주

제작 국립현대무용단

2025. 6. 14.(토) ~ 15.(일)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Sound of Busan #1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2 외

2025. 2. 20.(목) 19:30

Sound of Busan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1 외

2025. 4. 4.(금) 19:30

Sound of Busan #3

부산네오판하모닉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4 외

2025. 5. 29.(목) 19:30

Sound of Busan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3 외

2025. 7. 25.(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문의 051-607-6000(ARS 1번)



J. Brahms

J
O
H
A
N
N
E
S

2025' 정태춘 박은옥 문학 Project

노래시, 나의 노래

새 앨범 / 콘서트 / 노래 시집 / 붓글전

정태춘 박은옥 Concert

나의 시, 나의 노래

노래와 영상 그리고,
〈2025' 새 앨범〉의
새 노래들

2025.5.17(토) 17:00

부산 시민회관

Enjoy Your Time at LOTTE -Premium outlet DONG BUSAN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위치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구찌·버버리·몽클레르 등
약 500여개의 브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쇼핑 경험을 통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세요.

